

한인유럽

HAN IN EUROPE

2022
신년호



Dwinguler

BABY CARE™

우리 아이의 가장 안전한 놀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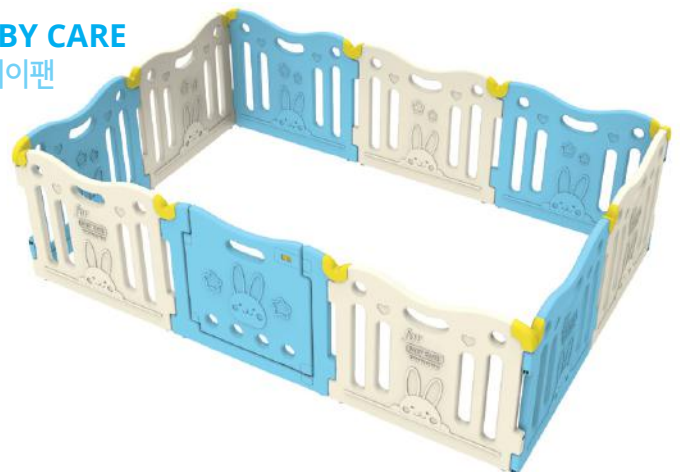
Dwinguler
놀이 매트

Dwinguler
캐슬



BABY CARE
놀이 매트

BABY CARE
플레이팬



YOUNGSAN

-20% CODE: GYOMIN20
www.dwinguler.eu

해외에서도 제대로 알고 투표하자!

재외선거 신고·신청부터 투표방법까지!



START!

재외선거 하려면 신고·신청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하여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신고기간 | 2021.10.10. ~ 2022. 01. 08.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 신청기간 | 2022. 01. 08. 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투표기간 및 장소

기간 | 2022.02.23. ~ 2022.02.28.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장소 | 공관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국외부재자 신분증명서

투표준비물

재외선거인

신분증명서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재외투표 할 때 잊지 말고 챙기자!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참조

- 1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를 제시 후 본인확인 받기
- 2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하기
-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넣기

투표절차

투표는 이렇게!



FINISH!

* 귀국투표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02. 23.)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일(03. 09.)에 국내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IMPRESSUM

+ 발행처	유럽한인총연합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Europe Muensterer Str. 29 65779 Kelkheim, Germany
+ 발행인	유제헌 (YOO, JE HUN)
+ 편집	유럽한인총연합회 편집실
+ 편집디자인	HEEYUNYOO
+ 기사/광고문의	T. +49-6173-966890
유럽한인총연합회	M. +49-172-6563470 E-Mail: yuchonggermany@gmail.com BANK: Je Hun Yoo Nassausche Sparkasse DE76 5105 0015 0198 0421 52 BIC: NASSDE55XXX
* 표지설명	2022년은 잡귀와 액운을 물리치는영물인 호랑이 해입니다.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동포사회의 평안을 기원하며, 통합의 유로 Star와 화해의 태극으로 한반도의 통일도 유럽한인의 힘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CONTENT

06 시가 있는 풍경	새해 약속은 이렇게 (이해인)
08 신년사	유제헌 회장
09 신년사	심상만 회장
10 신년사	김성곤 이사장
12 독일 한인사회 100년의 시작	
16 유럽한인청연합회 신년 인사회	
18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공식 출범	
20 한인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행사	
23 재영한인회 제35대 김숙희 회장 취임	
24 프랑스한인회 "코리안 페스티벌"	
26 불가리아한인회 2021년 활동상	
30 스페인 까딸루냐한인회 문화행사	
34 벨기에에서 한지인형 "한국 궁궐전" 개최	
35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	
37 프랑스 한인회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행사	
38 스웨덴한인회, 60년의 꿈 한인회관 개관	
39 터키한인연합회 제19대 김영훈 회장 선출	

▶ CONTENT

-
- 40 재영국한인회 송년잔치 성
대히 개최
 - 42 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제
40회 김종민 회장 선출
 - 44 프랑스한인회, "2021 정기
총회 및 송년회" 개최
 - 45 재독총연 행복상자 전달
 - 46 제9회 통일희망 라이프치
히 음악회
 - 49 터키 이스탄불주에 한국-
터키 우정의 숲 조성
 - 50 체코한인회 2021년 활동상
 - 52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
오징어게임 한국전통놀
이 대결
 - 56 2021년 국가별 재외동
포 분포
 - 58 대선후보들 재외동포청
공약
 - 60 대선재외선거유권자 왜 6
만명줄었나
 - 63 유럽한인총연합회 2022년
사업계획

새해 약속은 이렇게

시인/수녀 이해인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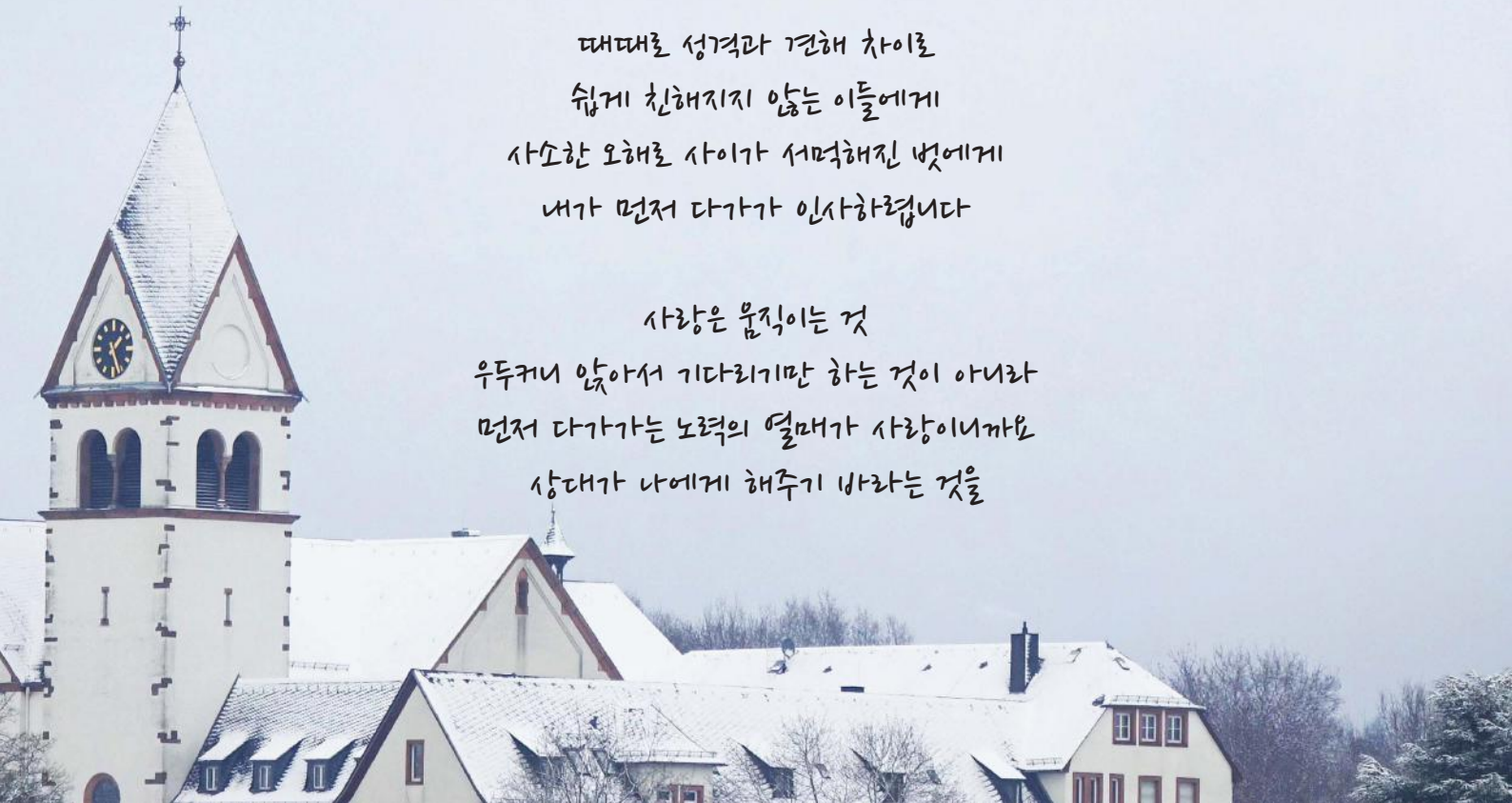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아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도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서먹해진 벗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니깐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주는
겸손과 용기가 사랑임을 믿으니까요
차 한잔으로, 좋은 책으로,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연다면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벗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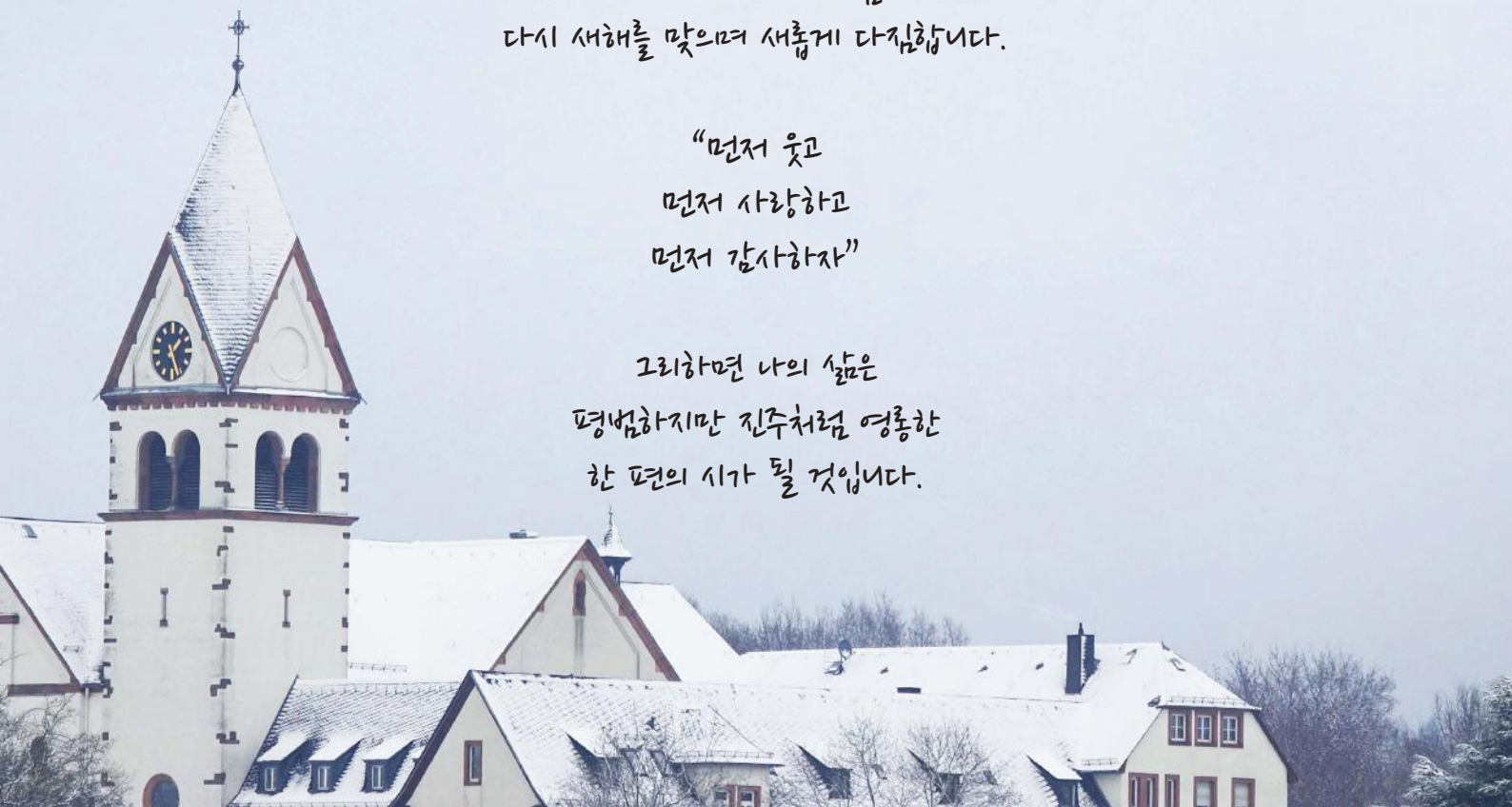
습관적 불평의 말이 나뉘려 할 때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성실함을 잃지 않게됩니다.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니까요
감사는 나를 살게 하는 힘
감사를 많이 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그동안 감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이의 기쁨으로
다시 새해를 맞으며 새롭게 다짐합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그리하면 나의 삶은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영롱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 2022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새해에 힘찬
출발과 동포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그 장기화로 인류문명은 코로나 전후로 나뉘어질 정도로 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더 빛을 발해왔던 KOREAN의 DNA는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동포사회의 안전방역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을 돕는 등 한인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동포사회의 중심 축으로 굳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한인회 회장님들과 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명의 새벽녘이 더 어둡다는 말을 증명이나 하듯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극복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햇살에 함께 손잡고 호랑이 기상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2022 임인년(壬寅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류역사 상 초유의 초음속 시대, 1년이 100년처럼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계(視界) 제로의 시대로 국경과 문화, 인종을 초월해 숨가쁘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해 구태(舊態)에 머물러 동(動)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뒤쳐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 한인단체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과 파도를 우리는 열린 자세와 소통과 화해, 포용 그리고 배려와 상생의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해, 포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통일도 750만 재외동포들의 결집된 역량으로 물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James Beeland Rogers Jr.), 로저스홀딩스 사의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이 시대에 가장 투자가치가 있는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투자가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통일을 이루고 세계 초일류 민족, 국가를 열어갈 역량이 충분합니다. 동서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은 서독 정부의 포용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들의 결집된 자신감이 밖에서 안으로 물결쳐 분단과 배척의 독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대한의 광복을 앞당기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유제현

▶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심상만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신축년(辛丑年) 한 해를 보내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새해에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세한총연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선거참여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세계 한인회장님들과 협력하여 《2022년 대선 투표 50만표 달성 캠페인》을 세한총연의 첫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인 215만 명중 22만 명이 투표를 하여 투표율이 10% 정도로 상당히 저조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현 선거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우편투표 도입’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번 대선에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외동포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 위상이 높아져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남은 기간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예년과 다른 재외동포의 단합된 힘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한인회장 여러분!

지난 10월 6일 전세계 500여 한인회의 대표단체로 출범한 세한총연은 새해에는 명실공히 750만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한총연이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 약 200여개 한인회장님들이 임회를 하셨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회장님들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어 세한총연에 힘도 실어 주시고, 향후 회원으로써 부여되는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또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세한총연이 재외동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만사형통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심상만 올림

▶ 한인유럽 신년사

유럽에 계시는 재외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2022년 새해는 우리 모두 코로나팬데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
이 넘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모국 대한민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K팝 K드라마
등 한국문화에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는 이런
자랑스러운 모국이 있다는 자부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재
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연대감을 유지하며, 나
아가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코리안 육성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포사
회의 미래를 담당할 차세대 동포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차세대동포들의 모국방문을 더욱 늘리고, 코로나로 위축된 한글학교의 역량을 강
화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한국 지차제와의 교류사업 등을 통해 차세
대 동포와의 교류, 향후 유럽 동포사회의 발전방향 논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같은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재외 동포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
는 이것을 한류의 정신 즉 K-spirit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이바
지하는 평화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도 거
주국의 국민들을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시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22. 1. 1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 성 곤

김 성 곤

제9회 유럽한인 차세대 웅변대회

2022년 3월 18일 (금) - 20일 (일)

|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 20일(일)

| 장 소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주소: Sheraton Zagreb Hotel Ul. kneza Borne 2, 10000, Zagreb, Kroatien

- | 참가자격
- 1) 초등부: 행사일 현재 유럽 거주 만 3 년 이상 (만 6세~11세)
 - 2) 중고등부: 행사일 현재 유럽 거주 만 5 년 이상 (만 12세~17세)
 - 3) 다문화가정부 (만 6세~17세)
 - 4) 각 참가자는 거주국 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5) 각 국가별 참가자는 각 부문별 1 인 (국가별 총 3 명)에 한함
단,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개최국(크로아티아)은 각 부문별 2 인에 한함

| 참 가 비 연사 무료, 보호자 1 명에 한해 100 유로 * 보호자가 2 명 이상일 경우 추가 보호자: 150유로

- | 웅변주제
- 1) 유럽한인 100년의 역사
 - 2) 자랑스런 한국, 한국인
 - 3) 한반도 통일과 미래
 - 4) 우리말 우리글
 - 5) 나의 꿈

| 참가신청 2022년 2월 28일 까지

| 접수처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국
yuchonggermany@gmail.com
+49-172 656 3470(회장)/ +49-172 612 8085(사무총장)

* 웅변 참가 외에 재능 자랑으로 참가하실 차세대의 특별 찬조 출연 참가도 환영합니다.
웅변 외의 참가자에 대한 상은 별도입니다.

주 최:  유럽한인총연합회

주 관:  THE KOREAN ASSOCIATION IN CROATIA
재 크로아티아 한인회

후 원: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주크로아티아대한민국대사관,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아신문, 우리뉴스, 유로저널, 교포신문, 유관순 열사 재단, 김구 재단, 영산 그룹 등
*후원 단체는 변경 가능

▶ 직접 대면 참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웅변대회로 대체합니다. 온라인 대회 개최의 경우를 대비해 영상(웅변대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 접수자들에게 차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독일 한인회(유덕고려학우회) 100년의 역사

2019년은 유럽 한인 단체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21년은 재독한인 이민의 디아스포라가 100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 한인회 100년을 보내며, 유럽한인총연합회에서 편찬한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중에서 독일 한인회가 태동한 발자취의 일부를 발취하였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이자 최초 도이칠란트 한국문학가인 이미록 박사의 기념동판이 이 박사의 묘소가 있는 뮌헨근교 그래펠핑(Graefelfing)시에 설치됐다.

독일 내 한국인 사회가 형성된 시기는 크게 해방 전과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확하게 명시하자면 재독한인 디아스포라는 1909년부터 시작되지만 192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조국을 잃은 «나라 없는» 망명자들로 독일의 한인 이주 역사로 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초창기의 한인들이 독일로 들어온 목적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치하에 들어가자 조국의 억울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복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나라를 박탈당한 한국인의 공공외교 활동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머물렀던 한인들은 현지인들에게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렸다. 초창기의 한인 유학생이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중국여권을 발급 받고 선편을 이용해 유럽으로 진입했기에 나라 없는 망명자들이었다. 따라서 유럽, 독일한인 이민사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해외 한인의 운동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1차 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끝나나 독일의 학계는 번창했다. 독일의 교육계는 전성기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통적인 철학·법률 계통 뿐 아니라 과학 분야 중 공학, 의학, 물리학 분야는 세계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새 학문을 접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났다가 일본 학문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그 후에는 독일 유학을 희망했다. 프랑스를 찾은 한국인들은 주로 노동자이거나 예술 전공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독일로는 대부분 유학이 목적이었다. 조국을 떠나 유학길에 오른 젊은 청년 일부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의 감시를 피해 정치적 이유로 떠나게 된다.

100년 전 독일 땅을 밟은 한국인, 1919년 3.1운동 후부터 재능있는 청년들을 선정해서 해외유학을 보내는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기미육영화»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 유학재단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

사람 중에 독일 유학생으로는 안호상(Jena 대학,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이극로(Berlin 대학, 현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등이 있다.

안호상은 예나 대학교에서 인문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귀국을 하고 각자 학계와 정계에서 활약을 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비유학을 한 한인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김재원은 뮌헨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에서 공부를 했고, 그가 쌓은 학문은 후에 한국 미술계의 주춧돌이 된다. 배운성은 베를린 예술종합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유럽 미술계에서 동서양의 화풍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의경은 뷔르츠부르크(Würzburg)를 거쳐 뮌헨(München)에서 동물학 학위를 받았으나 철학자, 문인으로 활동을 한 초대 재독한인 이민 중 한 사람이

면서 유일하게 독일에 남아 생을 마쳤다. 여러 한인 유학생은 독일과 프랑스를 넘나들면서 독립운동가로서, 학계에서 학자로서 활동한 재독한인 디아스포라들도 적지 않았다.



기미육영회에서 독일로 유학 보낸 3인의 모습 작축부터 안호상, 이극로, 신성모. 독일에서 학위 졸업식 날

해방 전 재독한인들의 유학 목적은 주권을 잃은 조국의 억울함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선진 서양의 신교육을 받은 후 고국에서 국민들에게 이바지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일부 유학생은 전문 교육 부문에서 학위를 받고 곧바로 귀국 하였고 국가를 위한 여러 기관에서 곧바로 활동을 했다. 이름을 명시하지 못한 초창기 한국의 행방 전까지 꽤 많은 재독한인 거류민을 이제 재독한인사회는 본격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독일 내 최초의 한인단체인 유덕고려학우회, 유덕고려학우회는 한인유학생 모임으로 김갑수, 윤건중, 이의경 등 11명이 주축이 되어 베를린에서 1921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유럽 최초의 한인 유학생 회로서 본거지의 주소는 베를린 칸트스트라세 122번지(KANTSTRASSE 122)였다. 1923년부터 이극로가 임

원으로 임회를 하면서부터 재독한인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었다.

유덕고려학우회가 결성 직전 1920년부터 당시 독일 거주국민의 수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1923년 독일 전국의 한인거류인은 55명, 유학생이 10개 대학에 33명, 총 88명이었고,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1924년 한인 유학생 수는 58명, 1925년 4월 조사록에는 52명에서 53명으로 추산되었다. 1920년 직후의 독일 전역에 체류했던 55명 각각의 거류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유감이다. 재독한인 유학생모임인 유덕고려학우회는 고학으로 고생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구제활동, 임정 지원활동, 대외 선전활동, 국제대회 참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27년 2월 5일부터 14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피압박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극로, 이의경, 황우일 세명을 대표로 선정, 파견했다. 임시정부의 대표자로 참석한 김법린이 일제를 규탄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이의경이 작성한 «한국문제, The Korean Problem»를 3개국 언어로 작성해서 행사 주최측에 제시하고 참가자에게 배포를 하는 등 항일운동을 했다.

포츠담(Potsdam)한인 구락부는 포츠담 한인들에 의해 1920년에 결성되었으며, 가장 활발하게 일제에 항거한 단체였다. 당시 포츠담에는 한인이 30명 이상이 체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한인들이 왜 포츠담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아직 어디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1919년 11월 10일에 일본이 가장 무서워한 조선의열단이 창립되었다.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하던 이들의 일부가 독일 베를린 근처의 포츠담에 조선의열단 일원으로 머물렀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조선의열단원 중 한 명의 난감한 행동으

로 독일 베를린에 체류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선의열단원으로 오성륜은 1922년 3월 28일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상해의 황초단 부두에서 처단하고 도망쳤으나 영국경찰에 체포된다. 그 후 일본영사관에 인계되어 감옥에 있다가 광둥으로 탈출한다. 광둥에서 중국여권을 위조해서 독일로 피신을 했는데, 독일 체류 중 오성륜은 독일인 여인과 사랑에 빠져 1년간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지니고 있던 자금을 탕진하고 주 베를린 소련영사관의 도움으로 1925년 모스크바로 가게 되었다.

이 단편적인 한 조선의열단원의 사적인 내용을 감안한다면 오성륜 외에도 베를린이나 포츠담구락부 안에는 최소한 몇몇 조선의열단원이 동양과 서양을 오갔다고 추측할 수 있다.

포츠담구락부의 회원들은 근처에 있던 한인식당에서 모여 열렬히 토론을 하면서 유럽사회에 잔악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자주권을 빼앗긴 한국의 억울함을 세계에 호소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은 포츠담에서 해마다 8월 29일을 국치일로 삼아 추모식을 거행하고 나라 잃은 아픔과 독립의지를 다짐했다. 1923년 10월 재독한인 대회에서 주제가 되었던 내용으로 다음 해인 1924년에는 32쪽짜리 «조선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침략정책»이라는 별도의 책자를 제작해서 유럽 및 세계 전지역에 배부한 사실을 대표적인 활동상으로 들 수 있겠다.

포츠담(Potsdam) 시내에 있었던 한인식당은 당시 유일한 한국인들의 집합장소로 베를린 인근 도시인 포츠담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인근 베를린을 위주로 한인들이 주로 주말에 모여 정보를 제공하고 항일활동을 펼쳤던 곳이다.

이 식당의 원주소가 사라졌다가 2018

년 재독 한국학 박희석 교수가 찾아냈는데 원주소는 알테 루이젠스트라쎄(Alte Luisenstrasse)로 구동독 시절 1976년 체플린스트라쎄(Zepplin-strasse)로 거리 이름이 바뀌었다. 도로 확장공사로 건물과 한인식당은 자취없이 사라졌지만 이제 대략의 위치는 알게된 셈이다.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20-30분 정도 서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츠담의 한인식당은 초창기의 한인 집회장소였고, 일본 관동 지진 후 재일한인 학살 잔해에 항의하는 «재독한인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923년 10월 26일에 개최된 «재독한인 대회Great Meeting of Koreans in Germany»는 독일 내 한인회의 가장 대표적인 항일운동이었다.

1923년 8월 일본에서 대지진 사건이 일어난 당시 베를린에서 동양미술 상인으로 활동하는 오토 부르카르트 Otto Burkhardt 박사가 중국으로 학술 여행을 갔다가 일을 마치고 일본으로 가는 «Emfress of Australia» 선박 안에서 일본을 요동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 그는 일본에 1923년 9월 1일-8일 체류했다.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 직접 목격한 재일본조선인 학살 장면은 그에게는 충격 이상이었다. 부르카르트 박사는 귀국 후 주 베를린의 포씨세신문 Vossische Zeitung에 «일본인에 의한 한인학살 대서»를 1923년 10월 9일자 호외기사로 대서특필하면서 이 사실을 자세히 알렸다.

유덕고려학우회와 포츠담 한인구락부 측에서는 즉시 부르카르트 박사와 면담을 추진하였다. 한국인 측 면담자로 유학생 고일청, 황진남을 선정해서 부르카르트 박사를 만났고, 이극로를 중심으로 그 후 즉시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인 학살»,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두 종류의 전단지를 작성해서 관련된 세계 각기관에 발부했다. 배포한 이 기사들은 국내 신한민보 1923년 11월 15일자로 크게 실렸다. 독일어로 작성한 «Japanische

Blutherrschaft in Korea 한국에서의 일본폭정»를 영문 «Japans Bloody Rule in Korea»으로도 제작하여 세계 중요기관에 배부한 것도 큰 활약 중 하나이다.

곧장 이 전단기사는 서울 신한민보에 1923년 11월 15일자로 «독일인이 일본 지진 시 한인 학살장면을 목도하고»라는 제목으로 크게 알려졌다. «왜병이 동포 15,000명을 요코하마 군영에 가두어 학살하다»라는 내용이었다.

포츠담구락부는 특별한 행사로 매년 8월 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치기념일 행사가 있었다. 포츠담 주변의 한인들이 모여 해외 항일운동과 한인 상호간의 교류의 장소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의 일본 폭정을 다룬 독일어 기사



화살표시된 곳이 포츠담구락부 자리

회보

회보(Haebo)는 유덕고려학우회의 회지로 재독한인의 동향과 국내외의 소식을 자세하게 알렸다. 1925년 10월 당시 제 4호를 참조하면 이 회보는

1924년 전부터 출판된 듯하다.

일제의 잔악성과 독립운동을 전개한 한인사회의 책자제작 및 전단지 인쇄는 베를린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이극로가 담당했다. 이극로가 책자를 작성한 다른 두 명과 본인의 서명을 하고, 저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명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숙소는 동시에 한인사무실로 사용된 듯하다.

베를린시에서 숙소를 얻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인근 시외에서 살았고, 이 건물은 다행히 현존한다. 원래 3층 건물이었었는데 현재 7층 건물로 확장되었다. 이 건물에서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트 Sigmund Freud도 체류했다는 석물표적이 건물 근처에 있다.

독일대학교에서 해방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들

주 한국대사관은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한국유학생을 초창기 1923년부터 1989년까지 조사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초창기인 해방 전 1944년까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인은 총 13명, 그 중 의학 박사가 6명, 철학 박사 3명, 물리학 박사 1명, 언론학 박사 Publizistik가 1명이고 뮌헨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이의경은 동물학 전공이나 의학부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 그들이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은 베를린(Berlin), 예나(Jena), 라이프치히(Leipzig), 뮌헨(München), 프라이부르크(Freiburg), 마부르크(Marnurg) 대학이다.

독일 최초의 한인 박사는 1923년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김중세라고 알려졌다. 그는 사실 1926년에 학위를 받았다. 그를 뒤이어 베를린 대학에서 1927년 이극로가, 뮌헨대학교 이의경, 김재원 등이 각각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서양 화가인 배운성은 1927년 베를린 중

합예술대학(Hochschule der Künste Berlin HdK)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독일 100년사를 작업하면서 찾아낸 해방 전 1945년까지 독일에서 박사학위 및 졸업을 한 유학생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 외에도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하고 항공 엔지니어로써 나치 항공대원들과 독일 하늘을 날았던 한인도 있었다.

뷔르츠부르크(Würzburg) 대학 유학생들

1920년 대후부터 뷔르츠부르크에 모인 한국인 유학생은 대략 30명 이었다는 설과 60명 이었다는 두 가지 설이 병행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뷔르츠부르크가 유럽으로 건너오는 한인 항일운동자들의 유럽 《체신부》의 역할을 하면서 독일에 도착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거쳐 가는 대학도시였다는 것이다.

뷔르츠부르크 유학생들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 출생으로 비교적 부유한 유학생활동을 했던 듯하다. 그러나 1925년 독일 환율 마르크의 폭락으로 인해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들 중 일부는 귀국을 하거나 제3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등으로 떠났다. 사실상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1940년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필자의 발굴명단에는 한 명도 없다.



1921년도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유학생들 앞줄 우측으로부터 두 번째가 이미륵 박사

* 주: 상기 글은 유럽한인100년의 발자취 중 일부이며 독일 동포 학자인 김영자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작성했다.

▶ 유럽한인총연합회 2022 새해 인사회와 함께 힘찬 출발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유럽의 각 국가 유럽한인총연합회 상임이사 및 집행부 임원 등 22명이 온라인 ZOOM으로 2022년 1월 8일 신년인사회로 힘차게 출발을 했다.

재외동포신문 김현수 기자



이번 신년인사회는 각국의 상임이사(국가 한인회장)들이 보다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참가 인원을 상임이사과 회장단으로 한정해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했으며, 초청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3월 18일 크로아티아 총회에서 반갑게 만나면 좋겠습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유럽한인사회도 위기를 맞았지만, 각국의 한인회가 눈부신 활약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인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필요성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하했다.

2022년 유럽한인총연합회는 3월 18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유럽한인체육대회, 청소년 통일캠프,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제4권 편찬 및 출판기념행사, 유럽

한인회장단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데, 유럽한인사회가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모두 손잡고 평화와 통일의 물결을 한반도로 보내는 해가 되도록 하자며 협력을 부탁했다. 유제현 회장은 2022년도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슬로건은 “소통과 협력으로 화합하고 동반성장하는 유럽한인사회”로 정해 활동을 할 것이며, 활동의 마침표는 한반도의 통일에 두자고 했다.

회의는 유럽한인총연합회의 2022년도 사업 설명,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소식 및 각국의 활동 내용과 문의 사항 등을 자유 토론의 형식으로 1시간 50여분 동안 진진하게 진행되었으며, 지난 연말 이후 새로 회장으로 취임한 회장들이 많이 참석해 한인회 운영 등에 대한 문의 사항도 많았다.



신년인사회에서 토론된 내용:

1. 웅변대회가 대면으로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영상)으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
2. 정기총회는 정관 상 대면 개최가 불가피하므로 가능한 대면 개최하며, 정관개정과 회장 선거가 주요의제이다. 지난 총회의 연기 및 회장 선거에 대해 선관위원장(김영기 회장)과 정관개정위원장(박선유 회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총회 소집 공문에 함께 보내기로 했다.
3. 유럽총연의 조직상 상임고문은 전직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유럽한인회총연합회의 통합 과정에 김훈 유로저널 대표가 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직을 수행했던 사실이 누락되어 김훈 대표가 상임고문이 아닌 고문으로 추대된 바 있다는 의견에 집행부에서 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필요시에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했다.
4. 세계한인회총연합회로부터 유럽에 13명의 대의원이 배정되어 1명이 추가되었다. 마지막 1석의 대의원을 스위스 한인회장으로 결정되었다.

(대의원 국가: 스웨덴, 영국, 네델란드, 독일,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터키,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13개 국가)
5. 한인회에서 회원들에게 연락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대한 대처방안과 의견 등 회의 내내 화기애애하고 진진하게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유럽한인사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구호와 함께 회의가 종료되었다. 기사, 사진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국



▶ ‘세계한인회총연합회’ 공식 출범

전 세계 500여개 한인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원으로 해 세계한인회
장대회 기간 중인 2021년 10월 6일 창립총회 개최

재외동포신문 김현수 기자



전 세계 500여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 10월 6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 세계 500여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가 2021년 10월 6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는 이날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대회에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한 각국 한인회장들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는 세한총연 창립추진위원장을 맡은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교식 세한총연 사무총장이 성원보고를 한 뒤, 안건 심의를 위해 임시의장에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을 선임, 제1안건으로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된 정관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유 임시의장이 세한총연 설립취지서

를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9월 5일 발기인총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대륙별 이사 명단을 발표한 뒤 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대륙별로 추천받은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세한총연 초대회장으로 지난 발기인총회에서 선출된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심 회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500여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 10월 6일 오후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대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심상만 회장이 세계한인회총연합회기를 흔들고 있다.

“세한총연은 전 세계 한인회가 오랜 이민 역사 속에서 가꾸고 일구어낸 귀한 역량들을 하나로 묶어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 세계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동포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 한인회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각종 교류협력을 확대해 내외 동포 간에 상호발전을 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일년여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세한총연이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오늘 창립총회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출발”이라며 “이제부터 재외동포들이 중심이 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분규 상태에 있는 총연들의 갈등을 수습하는데도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고문으로 위촉된 승은호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회장도 축사를 통해 세한총연의 창립을 축하했다.

총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2월 중에 만들어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의결하고 폐회했다.

다음은 세한총연의 설립취지서 전문이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설립취지서

본회는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10개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와 500개 지역한인회를 아우르며, 전세계 한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함으로써 전세계 한인동포와 함께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본회는 전세계 한인회 간의 소통과 유

대를 강화하고, 모국과 현지국가 간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현지 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와 자문 등 경제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차세대 한인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동포 기업인의 본국 (대한민국)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동포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행하고, 평화적이며 인류보편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반사업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사업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른 제반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한인회총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발기인 대표 심상만

▶ 한인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행사 “역사는 당신입니다”

재독한인간호협회, 중부독일 소재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기념식 개최

나복찬 재외동포신문 재외기자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독일 현지 언론들은 지난 1960~70년대 독일에 온 한국인 간호사들을 ‘코리안 엔젤’이라고 소개하곤 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에 온 한국인 간호 인력은 총 1만5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코리안 엔젤’이란 칭호를 들으며 재독동포사회 발전에 건인차 역할을 했으며, 병원, 가정, 지역사회, 한인사회에서 1인 5역을 담당해냈다.

사단법인 재독한인간호협회(회장 문정균)는 지난 9월 25

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보건료재단, 주독일한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간호협회 회원들과 주본부관 허승재 총영사와 이우철 공사참사관,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최광섭 글릭아우프회장, 고창원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원근 각지에서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한인 간호사 파독 55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최수자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먼저

국민의례 후 ‘나이팅게일 선서’가 문영희 고문에 의해 낭독됐다.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환영사 하는 문정균 재독한인간호협회장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문정균 회장은 환영사에서 “파독 간호사들은 반세기 넘게 열정과 근면으로 독일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민간외교관으로서 고국을 알리는 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수고하셨다. 고맙다. 이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힘써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다. 지금도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방문서비스, 지역사회와의 문화교류 및 봉사 등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로 각자의 위치에서 모범적인 한인사회를 만들었다”며 “이러한 역사의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기록으로 정리돼야 하겠기에 55주년 책자 발행도 있을 예정”임을 알리면서 “여러분! 역사는 당신입니다”라며 힘차게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축하하는 허승재 주본부관총영사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허승재 주본부관 총영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간호사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여러분들은 그동안 뜻깊은 일을 정말 많이 해오셨다. 그 가운데 지난 2015년도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혜자 방문 등은 독일 한인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축하하는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은 “20대 백의의 천사가 이제 80대 코리안 엔젤이 됐다”며 “이번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2세가 있는데 이러한 일 역시 여러분의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축하하는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민간외교관으로 1인5역을 해낸 여러분을 존경한다. 여러분의 노력은 근대사에 기록이 되어 마땅하다”며 “파독간호사와 파독광부에게는 근로자 명예훈장이 수여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어서 하이너 쉐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독한협회장의 축사 후, “파독 간호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정명렬 부회장이 대독했다. 노미자 고문은 격려사를 대신해 파독 간호사에 걸맞는 단시조 한 편을, 윤행자 고문은 ‘코리아 엔젤의 영원한 비상이여’란 시를, 정명옥 자문위원은 자작시 ‘대한의 딸’을 낭송했다.



재독한인간호협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 중부독일에 소재한 파독광부기념회관 및 한인문화회관에서 ‘간호사 파독 55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임 회장단 (사진 나복찬 재외기자)

1부 마지막 순서로 문정균 회장은 윤행자, 박소향 고문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전직 회장을 역임한 고문진에게 기념선물을 증정했다.

제2부 문화행사는 김선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악 3중주로 ‘동무생각’, ‘비목’,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 ‘Ode-AndieFreude’가 연주된 후, 이어진 건강세미나에서는 강황용 강사가 ‘호흡 및 혈관 마사지’란 주제로 강의했고, 최미순 씨의 ‘삼고무’, 이원희 씨의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재독한인간호협회 전 임원이 무대에 올라 ‘서울의 찬가’와 ‘나의 고향’을 합창하면서 막을 내렸다.

▶ 김숙희 제35대 재영한인회장 취임

이석호 기자 dolko@hanmail.net



김숙희 재영한인회장이 10월8일 한인종합회관에서 열린 한인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재영한인회]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 재영한인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0월8일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종합회관에서 열렸다.

영국 코리안위클리예 따르면 이 행사에는 김건 주영한국대사, 재영한인회 임원, 한인단체장 등을 포함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숙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재영한인들의 친목과 화합, 공익증진 그리고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건 대사는 “한인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을 잘 포용해서 함께 가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대사관도 재영한인사회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축사를 했다.

김숙희 신임 회장은 지난 9월4일 실시된 제35대 회장 선거에서 임선화 황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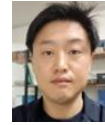
하 후보를 이겼다. 63년 한인회 역사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인회장이 된 그는 포항 출신으로, 민주평통 영국지회 부회장, 재영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유럽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재영한인 자녀 장학금 지원, 맞춤형 소자본 창업 지원, K문화 축제 개최 등 공약을 발표했다.



▶ 프랑스한인회 ‘코리안 페스티벌’ 2년 만에 다시 열려

프랑스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석호 기자DOLKO@HANMAIL.NET



10월 22일 파리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한국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개막 전야제 행사에는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유대종 대사와 유럽한인총연합회 유제현 회장, 최영근 사무총장 및 마침 한국에서 방문한 김경협, 김홍걸, 허영 의원이 참석해 주하해 주었다.

개막 전야 공연은 한국에서 온 풍물놀이 공연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공연 후에는 대사관에서 마련한 한국음식 뷔페를 나누며, 코리안 페스티벌의 발전과 멋진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나누었다.





지난 10월23일 파리 16구지역인 자흐당 아꼐리따따씨웅 공원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렸다. [사진제공=프랑스한인회]

프랑스한인회(회장 송안식)는 “지난 10월23일 파리 16구 지역인 자흐당 아꼐리따따씨웅 공원에서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었다”면서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내왔다.

한인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전통예술원 타무’의 길놀이로 축제로 시작됐다. 이어서 아마추어 케이팝 그룹인 라이징크루와, 박돌립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밖에 K-POP 경연대회, 한국노래자랑, 청소년 사생대회, 우준태 사범이 이끄는 태권도 시범, 베스트 한복 드레서 선정, 각종 시상식 및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는데, 가장 관심을 끈 프로그램은 K-POP 경연대회였다. 총 11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연대회에서 1등은 The Cloud Dance Crew, 2등은 Be-OG, 3등은 OUTSIDER FAM에게 돌아갔다.

행사장 주변에는 20여개의 부스가 설치, 파리 시민들이 한식을 맛보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베르사이문화협회, 뿌리협회, 파리한글학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부스를 설치해 단체·기관을 홍보했다.

송안식 프랑스한인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를 건너뛰고 2년여 만에 행사가 열렸고, 중간에 행사 장소도 바뀌면서 참가자가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소 1만여명 이상이 방문했다”면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번 행사에 대해 자평했다. 그는 또 “2021년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행사들로 한인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불가리아한인회 활동 보고 2021(2월-11월)

1.한인 원로 초청 오찬 행사 (어버이 날 계기, 5.8)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소피아에 거주하시는 원로 한인 분들을(60세 이상, 7명) 오찬에 초청,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한인 사회에서 한인 원로 분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이야기를 나누며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한 함께 생각함. 또한, 한인 원로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함.



2. 주불가리아 대사 감사장 전달 (정진규 대사 이임 오찬 계기, 5.13)

지난 3년 동안 불가리아 대사로 많은 수고를 하셨던 정진규 대사님 이임을 계기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대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하면서 주불가리아 대사관의 한인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3.한글학교 교사 초청 오찬 행사 (스승의날 계기, 5.17)

스승의 날을 계기로 소피아 한글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교장1명, 교사3명) 오찬에 초청하여, 수고에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뜻 깊은 시간을 함께 가짐. 한글학교의 발전이 곧 한인사회의 발전이라



는 사실에 공감하고 한글학교가 차세대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장소가 되기를 함께 소원함.



4. 한국 선수단 격려 (올림픽 출전 세계 쿼터 대회 소피아 개최,5.6)

팬데믹 시기에 소피아에서 개최된 “올림픽 출전 세계 쿼터 대회”에 참가한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팀을 만나, 격려하고 응원함. 또한 선수단들에게 한국 음식 배달 서비스와 필요한 통역을 알선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선수들에게 장미 워터를 선물함. 배성한 부회장은 대회 준비 및 기간 동안 소피아 소재 숙소 2곳과 사모코프 도시에 있는 숙소 한1곳에 매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수단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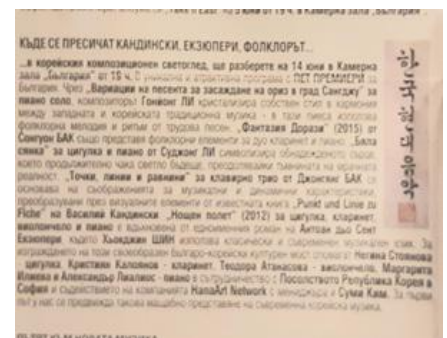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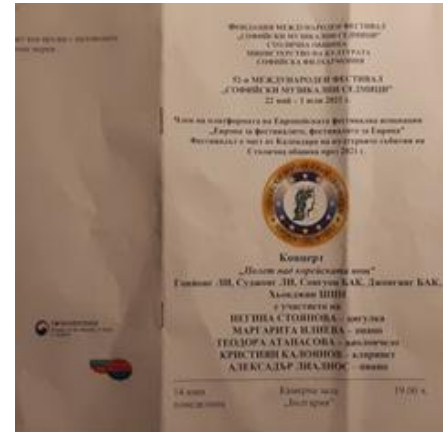
5.소피아 장애인 복지센터 방문 행사 (어린이날 계기, 6.1)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단독 건물로 건축된(1999) 소피아 장애인 복지센터를 방문, 동 복지센터 소장과 환담하고 마스크 및 한국 과자 박스를 전달함. 이번 방문 행사를 계기로, 향후 불가리아 한인회는 장애인 자원봉사 등 복지센터를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장애인 복지센터장은 팬데믹 상황이 안정되면 한인들이 자원봉사 활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한편, ASM & RES(남동발전/SDN) 법인의 지원금으로 한국 과자 박스 상당을 지원할 수 있었음. 또한 Albena Atanasova소피아 부시장은 강환정 한인회장 앞으로 감사 서한을 보내옴.



6.한국현대음악 연주회 지원 (“소피아 음악 주간” 행사 계기, 6.14)
불가리아 대통령 후원으로 개최된 “소피아 음악 주간” 행사 중에, 한국 현대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불가리아 음악인들이 연주함. 동 연주회는 불가리아 한인회 감사인 김수미 선생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불가리아 한인회는 동 연주회를 지원함. 동 연주회는 부르가스에서도 이루어짐. 여러 한인들이 연주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현대음악을 감상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짐.



7.남동발전 법인장 환송 오찬 및 감사장 전달 (7.15)
본국으로 귀임하는 손문빈 남동발전 법인장 및 신임 강승우 법인장과 환송 오찬을 하면서, 한인회 지원에 대해 남동발전 법인에 감사하는 감사장을 전달함. 신임 강승우 남동발전 법인장은 한인회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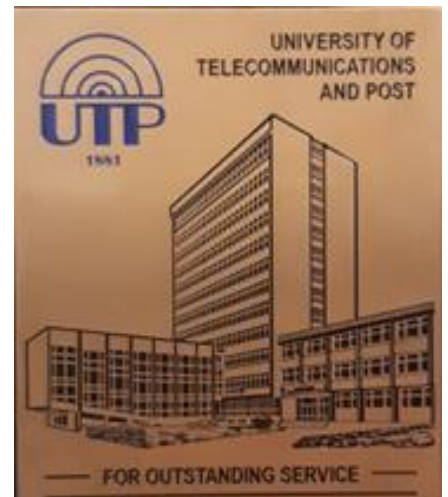
8.COVID-19 취약층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2021.7-9)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불가리아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COVID-19 취약층 및 소외계층에 대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 한인 24세대에게 한국식품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음. 물량은 많지 않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였음.



9.불가리아 한인회장 공로패 수상 (9.2)

지난 9월 12일 불가리아 고등교육기관의 가장 오랜 역사(140년)를 가지고 있는 "University of Telecommunication and Posts"(소피아 학생타운 소재)는 지난 9월 12일 개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인사들에게 공로패 전달식을 개최함. 불가리아 강현정 한인회장은 동 대학교가 주최하는 "여름 리더쉽 아카데미"(6월 1일)에 참석하여 "경제 및 정치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리더쉽"에 대해 공개 강의를 하고 주 불가리아 대사관과의 협력을 위한 교량 역할을 한 기여로 공로패를 수상함.



10.한인회 간담회 개최 (9.28 저녁, 온라인)

코비드-19로 동포간 교류의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리아 한인사회의 동정을 서로 알고, 나아가 신임 정진주 영사님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회 간담회가 개최되었음. 양기동 회장은 대사관과 한인회 간의 협력이 2020년 말에 실시된 "정책제안" 대회의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고, 우영길 회장은 한인들을 위한 "도서" 공급이 착실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음. 정진주 신임 영사는 대사관이 한인사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동 간담회에서 한인회장은 한인회 활동 상황과 현안에 대해 소개도 함.

11. „세계한인회장대회” 행사 참석(서울, 10.4-6, 온라인)

강환정 한인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온라인 참석함. 동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매년 행사로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으며, 국회의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등의 개회사 및 축사 등으로 시작되어, 정부와의 대화, 각 대륙별 현안사항 토의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특히 올해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출범식 행사가 있었으며,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음(회장: 심상만 아시아 총연합회장). 불가리아 강환정 한인회장은 동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3인의 감사 중 한 명으로 선출되었음.



<사진: Wolrd Koren 인터넷>

12. 불가리아 스승의 날(계몽자의 날, 11.1) 계기,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 방문(11.16)

강환정 한인회장은 한국의 스승의 날(5.15)과는 별도로, 불가리아 스승의 날(계몽자의 날) 계기 한국학과에서 수고하는 불가리아 교수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자 소피아 대학교 한국학과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교수들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하고 환담함.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11.25)

밀레니엄 호텔 „Black & White Piano Lounge”에서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됨. 밀레니엄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명수 회원님이 장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플로브디프 명예영사(삼성판매법인)가 경품(공기청정기, 스마트워치, 이어폰) 및 초코렛(35박스)을 제공해 주었고, ASM & RES(남동발전/SDN) 법인에서 바우처(20개, 1개-100레바상당), 바르나 명예영사가 바닷소라 30kg, 주불가리아대사관에서 선물(화장품, 음악앨범등)을

제공하여 주었음. 여러 한인회원들은 동 행사는 여러모로 풍성한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임성택 회원(인터넷 뉴스코리아, 특파원)은 동 내용을 기사화하여, „한인회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함.



▶ 스페인 까타루냐 한인회 오징어 게임 행사 성황

까딸루냐 한인회에서 주최하고 바르셀로나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한 2021년까딸루냐 한인회 문화행사(한국민속놀이&K-POP)가 지난 11월 1일 월요일, C.F. Montañesa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고고스페인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EL PERIODICO, AGENCIA EFE등 현지 신문과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가진 이번 행사는 허태완 바르셀로나 총영사, 이덕 까딸루냐 한인회 회장을 비롯하여 게임 참가자 248명, 관중 150명, 자원봉사 운영요원 67명 및 전 한인회 회장님들, 여러 어르신들과 교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특별 초대된 박의석 목사(한서교회 임시 설교목사)님은 참가자 번호 1번으로, 오일남 할아버지 역할로 참여하여 실제 시리즈와의 싱크로율을 높였다.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내리던 비가 오전 7시 경부터 점차 개이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한 9시 부터는 비가 모두 그치고 푸르고 높은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녀 마치 이번 문화행사를 반기는 듯한 더없이 좋은 가을 날씨였다.



10시부터 박재훈, 이경민씨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와 김경은 소프라노의 애국가 제창으로 그 첫 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덕 까딸루냐 한인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지난 20개월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드디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고, 본 행사가 유럽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행사인 것이 매우 뜻깊으며, 이제 바르셀로나와 까딸루냐 지역이 안전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하하신 허태완 바르셀로나 총영사는 3년 임기를 마치고 곧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됨으로 이임인사를 겸하였다. 역시 2년만에 진행된 대면 행사에 대한 축하와 반가움을 드러내며, 본인이 떠난 이후에도 바르셀로나를 생각하며 응원할 것임을, 그리고 본인이 몸담았던 까딸루냐 지역 교민들과 동포들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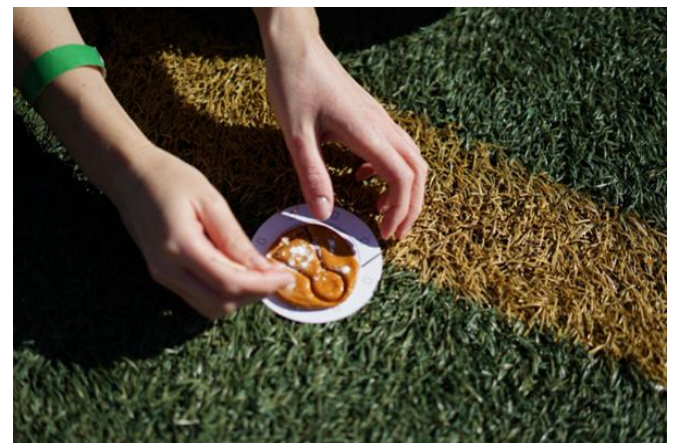
본 게임을 진행하기 전, 한국 문화를 스페인 현지에 전달하는 좋은 취지에 맞추어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주관으로 K-POP 댄스 공연이 있었다. 바르셀로나 K-POP 커버댄스 크루인 The Fam과 Ahyon이 블랙핑크, 트와이스, 백현, 태민, 리사, 있지의 노래에 맞추어 찬조 공연을 하였으며 남녀노소 모두 환호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이후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한국 민속놀이는 1부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설탕 뽀기)', '신발 던지기', '줄다리기', 2부에서 '윷놀이',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던지기' 총 9개의 민속놀이로 구성되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상징적인 게임이기도 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첫 게임이라는 긴장감에 탈락하는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탈락의 아쉬움을 달래주려는 주최측의 배려로 실격자 부활전 기회를 주어 모두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게임, <달고나(설탕 뽀기)> 속 달고나는 한인회 회장단에서 손수 만들어 정성이 듬뿍 들어간 달고나였다. 삼삼오오 모여 옆드려서, 쪼그려 앉아서 달고나 설탕 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정겨웠다. 달고나의 맛을 알고 있는 어른들의 향수도 자극하고, 이번 시리즈를 통하여 달고나에 대해 궁금해하던 젊은 층의 궁금증도 해소하는 유쾌한 게임이었다.



<신발던지기>에 이은 <줄다리기>는 오일남 할아버지가 팀 내에 노약자가 있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였는데, 정말이었다. 각 팀별로 모여 게임 진행방법을 회의하여 전략적으로 우승한 팀이 다음 게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점심 도시락은 Netflix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의 점심 도시락과 같이 옛날 도시락 스타일로 제작하였는데, 바르셀로나 한인식당 가마솥(강순배 대표), 리틀코리아(이숙현 대표), 포도나무(정미경 대표), 하나식당(이성진 대표), 까사 문(문정우 대표), 김치마마(신진호 대표), 총 여섯 곳에서의 후원이 있었다.



한 시간가량의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국에서는 명절 마지막 날, 가족끼리 꼭 하게 되는 <윷놀이>, 체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단체 줄넘기>가 진행되었다. <제기차기>에서는 재야의 고수들이 속속들이 나타났다. 이 중, 팀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시 “까득기”로 특별히 초대된 깐부, 1번 참가자 박의석 목사는 소식적 뒷골목에서 제기 좀 찼던 실력을 가감없이 뽐내며 많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주인공 성기훈에게 오징어 게임의 존재, 그리고 돈의 맛을 되새겨 준 계기가 되었던 <딱지치기>, 준결승전에서는 운명의 장난처럼 스페인-한국 국제 부부가 1:1로 맞붙게 되었다. 결국은 한국인 아내가 스페인 남편의 딱지를 가볍게 넘기며 딱지치기 종주국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상품으로 1등은 한국-스페인 왕복 항공권, 2등 456유로, 3등 228유로, 4등 114유로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게임을 마친후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행운 추첨에서는 최고행운상 상품으로 삼성 50인치 TV, 2등 진공청소기, 3등 스마트 워치, 그외 전자레인지(위니아 후원) 10대, 카카오 프렌즈 상품(바르셀로나 총영사관 후원) 5세트, 라면 40박스, 기타 한국식품(이식품, 한국식품 후원) 등 다양한 상품이 풍성하게 지급되었다.

Daedo(대도 박천욱대표), 효성(정준재 지사장), 위니아(박경주 지사장)등 까딸루냐 지역 소재 기업들의 후원이 있었으며, 한인회 강순배 수석부회장, 송달용 장로, 한인회 이성근 이사, 이영래 전회장, 정재경 전회장, 김충문 원장, 이현택 이사, 김부향 전회장, 강명희 전회장, 김은산 이사, 조병수 국장, 문인성 여사 최관성 전회장들의 감사한 후원금 덕분에 본 문화행사 완성도가 더해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2021 까딸루냐 한인회 문화행사(한국 민속놀이&K-POP)>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까딸루냐 한인회 임원과 청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2021 까딸루냐 한인회 문화행사(한국 민속놀이&K-POP)>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까딸루냐 한인회 임원과 청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본 행사 생중계 영상은 고고스페인 유튜브 채널(여기를 클릭하세요)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벨기에에서 한지인형 ‘한국 궁궐전’ 개최

양미영 작가 450 한지인형작품 선보여... 박종우 서헌강 사진작품도

worldKorean

홍미희 기자SU5929@HANMAIL.NET



벨기에 한국문화원(원장 김재환)이 조선시대 도감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기록에 따라, 영조왕이 정순왕후를 맞이하는 행렬을 전통 한지인형으로 재현한 전시를 9월 13일 개막했다.

전시 ‘한국의 궁궐 특별전’은 벨기에 한국문화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에는 왕의 행차를 재현한 양미영 작가의 450여점의 한지 인형은 물론, 한국의 전통 궁궐을 렌즈 속에 담아낸 박종우, 서헌강 작가의 사진작품들이 함께 소개된다. 동시에, 궁중음악 ‘종묘제례악’ 연주에 사용되던 악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현지 관람객들이 조선 시대의 궁궐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전시에 참여한 양미영 공예가는 전통 종이로 만든 450여개 인형을 통해 ‘영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에 기록돼 있는 왕의 행차, 1759년 영조가 정순왕후를 맞이하던 장면을 재현해냈다. 50여 페이지에 걸쳐 1,300여명의 사람, 400여마리의 말, 그리고 가마 등이 등장하는 이 의궤에는 영조가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하는 행차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 작가는 145년 만에 영구임대 형태로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 책에 수록된 거대한 혼례 행렬을 한지 인형을 통해 다양하고 섬세하게 재현했다.



10월15일까지 주벨기에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궁궐 특별전’이 열렸다. [사진제공=주벨기에한국문화원]

이 작업은 2014년부터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양 작가는 “전통 한지인형으로 한국 전통 역사의 소중한 장면을 재현한 ‘왕의 행차’를 벨기에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뛰어난 색채감각으로 사진을 통해 한국 전통 왕궁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박종우, 서헌강 작가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 서헌강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 왕릉, 종묘, 궁궐 등을 대상으로 빛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담은 사진작품들을 선보인다.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유명한 박종우 작가는 경복궁, 창덕궁, 등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즈넉한 고궁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들로 전시에 참여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인 궁중 음악,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던 악기(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보유자 김현곤 제작)들이 함께 소개된다. 종묘제례악은 서울 종묘에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위한 제사에 연주되던 곡으로 2001년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전시를 통해 종묘제례악에 사용되던 편종·편경·방향·축·어·박·당피리·대금·해금·아쟁·장구·징·태평소·절고·진고·휘 등의 전통 궁중 악기들과 연주 시 입던 의복, 그리고 사진 등이 함께 소개돼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궁중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주벨기에유럽연합 한국대사관 김학재 공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고유한 한국의 전통 궁궐문화를 소개한다는 점이 뜻깊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이 유럽 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 사업은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해외에 소개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한국무형문화재 주간’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10월15일까지 계속된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장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 함께 건립 29일(현지시간) 개장식
유럽 최대 항만에 우리 수출 기지 확보 의미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기자



로테르담 물류센터 조감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함께 건립한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장식이 10월 29일(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열렸다.

이날 개장식에는 로테르담시,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등 관계자도 자리해 개장을 축하했다.

로테르담항은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는 11번째,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만이다.

네덜란드는 동쪽으로는 독일, 남쪽으로는 벨기에, 북해 너머로는 영국과 접해 있어 전통적으로 상업과 물류업이 발달해 왔다. 그 중에서도 로테르담은 수 세기동안 해상 운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온 유럽 최대의 환적항이자 관문항으로, 암스테르담과 함께 네덜란드의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다. 우리 기업들도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유럽에 진출해 왔으나, 2018년경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외의 물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 때문에 과도한 물류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안정적인 물류기반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거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투자 여력이 있으면서도 해외 항만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물류 거점 확보에 나섰다.



로테르담 물류센터 사업 부지 위치

부산항만공사는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네덜란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로테르담 항만에서 서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배후부지 ‘마스블락테’ 지역에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번에 건립한 물류센터는 창고면적 3만 제곱미터, 부지면적은 5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이 중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역이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게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개장식 이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정보통신 기반의 화물추적 RHK재고관리 시스템을 갖춰 우리 중소기업이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반 물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화물 보관 외에도 재포장 및 라벨작업, 육로 및 수로 운송 연계, 사무공간 대여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코트라의 공동물류센터로 지정된다. 코트라가 갖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4일 부산항만공사와 코트라가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해외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외 주요 항만에 물류거점을 확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9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자바 주의 프로볼링고항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남유럽의 관문인 스페인 바르셀로나항에도 물류센터를 확보 중이며 올해 말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은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에 마련한 물류센터가 우리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외 물류 거점 확장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비서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행사

월드코레안 이석호 기자



11월11일 프랑스 쉬프에 있는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비'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 행사가 열렸다.
[사진제공=프랑스한인회]

프랑스 한인사회 인사들이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인 11월11일, 유럽 한인 역사가 시작된 프랑스 쉬프(suippes)에 모여, 1차 세계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프랑스인들과 100여 년 전 전후복구 노동자로 프랑스에 온 한인 영령들을 위해 참배했다.

파리에서 약 200km 떨어진 쉬프는 2019년 세워진 '프랑스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이 기념비는 100여 년 전인 1919년 프랑스에 정착한 홍재하 등 35명의 한인을 기리는 비석이다. 이 기념비 앞에서 이날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행사가 열린 것.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만주를 거쳐 러시아 무르만스크로 건

넌간 홍재하는 1차 대전 당시 영국군을 따라 영국 에든버러로 갔다.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는 이 소식을 듣고 서기장 황기환을 영국에 급파해 이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해가 1919년이다. 홍재하 등 1세대 한인들은 프랑스 전후복구 노동자로 일했다. 또한 프랑스 최초 한인단체인 '재법한국민회'를 만들어 2대 회장으로 일했다.

이번 1차 세계대전 종전기념행사는 쉬프시가 주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한인회 송안식 회장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쉬프시정부, 주프랑스한국대사관, 민주평통 남유럽협의회, 재향군인회 프랑스지회, 교민원로청솔회, 재불한인여성회, 프랑스외인부

대한인전우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스웨덴한인회, 60년만의 꿈인 한인회관 개관



스페인 한인회 기사 및 사진 제공

지난 12월4일은 스웨덴 한인이민사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스페인 한인회 기사 및 사진 제공

60년만에 동포들의 꿈이자 소망이었던 한인회관이 내외 귀빈을 모시고 태극기의 상징인 3색 태이프를 주스웨덴한국대사관 하태역대사님과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님, 경상남도 함양군 서춘수 군수님, 한국/스웨덴 협회장 Lars Frisk 님과 1950년대 최초의 이민자이신 90고령의 연세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순애 Angberg, 춘자 Gagerman, 이선옥 선배님들 그리고 차세대 젊은 층의 다양한 어울림이 있었고, 대사관에서 지원해 주신 음료와 함양군으로부터 긴급 수송된 특산물 또한 선보였습니다.



스페인 한인회 기사 및 사진 제공

특별히 본 행사에서 한식 전문가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기려했으나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 지침에 따라서 도시락으로 변경한 점이 끝내 아쉬웠습니다.

한인회관 개관에 협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LG 법인, KO-TRA, 김미푸드와 그 외의 회사 대표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스웨덴한인회 차창선 회장께서 전해왔습니다.



스웨덴 한인회 기사 및 사진 제공

▶ 제19대 터키한인회장에 김영훈씨 선출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김영훈 누가의료기 터키 총판장이 제19대 터키한인회장으로 선출됐다.

터키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규백)는 “제19대 터키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영훈씨가 지난 12월18일 이스탄불에 있는 POINT Hotel Barbaros에서 열린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전원 찬성을 받아 차기 회장이 됐다”고 밝혔다.

18대 터키한인회장 임기는 지난해 5월 종료됐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한인회장 선출도 1년반 정도 지연됐다.

터키에는 터키한인회(이스탄불), 앙카라한인회, 이즈미르한인회, 터키 동남부한인회 등 4개 한인회가 있다.

김영훈 신임 회장은 본지에 “새롭게 터키에 정착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한국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 신임 회장은 민주평통 이스탄불분회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 영국 한인회, 송년잔치 성대히 개최해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영국한인 송년회다운 잔치가 실로 12년만 인 11월 27일 영국 한인타운 소재 몰던센타 에서 6시부터 10시까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지난 10여 년전 한인회(당시 회장 서병일)가 톨워쓰 여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어 300여명 이 참석했던 송년잔치 및 총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한인회관 회의실에서 매년 한인 회 임원들을 포함한 20-30여명이 모여 개최된 것이 고작이었는데 오랫동안 송년잔치다운 송년회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특히, 이번 송년회는 송년회의 꽃인 경품이 역대 최대중에 하나로 55인치 TV를 비롯해 117건이나 준비되어 경품권을 구매한 사람이나 참석한 한인들 모두가 경품을 차지하는 행운을 안았고,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어서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이날 상품 중에는 영국 제약회사에서 후원한 영국산 건강식품(Well Woman 멀티비타민 & 미네랄 건강기능식품)과 재영한인 이근정 대표가 기부한 남여 양말 600켤레가 있어 참석한 한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며, 이날 남은 150여 켤레의 양말은 송년회 이후인 12월 10일 킹스톤 시에서 개최한 크리스마스 파티 초청에 참석하면서 기부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임집행부가 출범한지 2개월에 지나지 않았지만 김숙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송년회 행사 개최, 경품과 상품을 위한 후원금, 후원상품, 협찬 등이 대거 들어온 것은 아직도 재영 한인들의 한인회에 대한 관심이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송년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참석했던 한인들은 내년부터는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한인들이 모여 ‘송구영신’을 주고받는 한인 송년회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재영한인총연합회(회장 김숙희)가 개최한 송년회에는 내외귀빈들을 비롯하여 한인 어르신들, 북한출신 한인들을 비롯한 150 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오랫동안 하나가 되어 즐거운 ‘송구영신’의 밤을 보냈다.

특히, 이번 송년회에는 10여년 만에 전임 회장들인 서병일, 신우승, 하재성(킹스톤 시의원), 송천수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어 이승신 총영사, 박명은 코참회장, 전우형

코트라 관장, Shshila Abraham 킹스톤 시장, 장도 순 민주평통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 내 주었다.



이번 송년회는 김수지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어 노인회 합창, 홍준엽의 바이올린 연주, EDDIE- K-POP (마마무의 Water color, 생김의 Juice), 진데님(김정엽)의 Eternal, Midnight, Thirsty Gang시온(강 성은)의 All need, 넌 내게 물어봐, 그리고 Sengno(센요)의 K-POP 댄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송년의 밤을 선사했다.

한인회의 이와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의 공연 역시 10여년 만이어서 한인들의 한인회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환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한인(뉴몰든 거주 23년)은 “오랫만에 송년회다운 송년회가 개최되어 무척 기쁘다. 그리고 송년회 스텝에 많은 한인들과 새해인사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이제 한인회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김숙희 회장과 현집행부에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인회가 10여년간 소송 등으로 한인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한인회 운영이나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인회가 한인들에게 필요한 단체로 거듭나고 활기찬 활동을 한다면 한인들의 참여는 얼마든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번 송년회의 내용과 결과이다.



아가고 있는 K-POP 등 한류 문화를 현지 사회에 알리는 행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예산도, 행사 준비도 충분하다. 특히, 현 한인회 회장과 집행부의 추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감에 확신이 든다. 총 25,000 파운드면 가능하다.

동포재단 지원금 (15,000 달러)을 포함해 한인들이 이번 송년회처럼 후원과 협찬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레 겁먹지 말고, 한 번 개최를 생각해 보자.



4만명의 재영한인들이 재외동포재단 지원 예산에 추가 예산 1-2만 파운드를 모으지 못 해 최대 15,000 명이 참석했던, 어찌보면 유럽내 최대 한인문화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 개최될 때는 재외동포재단 지원 한푼 없이 한인회가 제공한 단 돈 3,000 파운드를 밑천으로 해서 대사관, 관광공사를 비롯한 범한인사회가 동참하여 시작해 매행사 때마다 3,000-15,000 여명이 참석했고, 행사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60-70%가 영국인 등 현지인들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내 최대 한인 문화 행사라는 점에서 주영한국 대사관과 관광공사 등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송년잔치를 도와주신 분들

후원:

박화출 님, 돈부리 앤코 (이상림 대표) 참투워 (김형덕대표) 로빈훗 (김성수대표) 무명, 요식업협회 (우옥경 회장), 탈북협회(이정희 회장)

협찬:

베누지오, 네이처 리퍼블릭, 이모네, 이찬우, 가야, 유미회관, 강남, 궁, 아지트, 비빔밥 & 치맥, 징기스칸, 진고개, 야미, 코리아푸드, 판 아시아, H마트.



이제 과거 14년동안 KINGSTON FAIR FIELD PARK에서 개최되면서 영국 SURREY 지역 내 최대 축제로 8년전부터 중단된 한인축제(KOREAN FESTIVAL)의 부활을 이루어 내야한다.

최근 3-4년동안 뉴몰든 구석에서 K-POP 등에 의해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한인축제가 아니라, 개최취지에 맞게 우리 한국의 고유문화와 함께 세계 속에 자리 잡

▶ 제40대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에 김종민 선출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
글 박민우 기자
사진 주현우 편집장



총회전경



개회사하는 임창노 제39대 한인연합회장

지난 21일,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정관 제10조에 의거 제40대(2022년/2023년) 한인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총회가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임창노 한인연합회장과 이덕호 부회장, 황병진 부회장, 최

두현 원로회장, 장석준 감사, 허진경 사무총장, 김명신 사무국장, 김운하 편집고문, 김충자 여사, 이영실 홍보이사, 유보나 회계이사, 주현우 문예이사, 김종민 이사, 모미성 신임 부회장, 박승현 신임 사무총장이 자리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임창노 제39대 한인연합회장의 개회사 그리고 허진경 사무총장의 회계보고로 총회를 시작했다.



뒤이어 최두현 한인원로회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의 인도로 입후보자 정견 발표 및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김종민 한인연합회 이사가 제40대 재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에 선출되었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인사말 전하는 김종민 제40대 신임 한인연합회장

이외로도 연합회 감사를 선출하고 COVID-19 방역대책위원장직을 유임하는 등의 논의를 가졌으며, 총회를 폐회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새로 한인회를 이끌어갈 제40대 연합회 임원진 - 박승현 신임 사무총장, 황병진 COVID-19 방역대책위원장, 이덕호 부회장, 장석준 감사, 김종민 신임 한인연합회장, 모미성 신임 부회장.

출처/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홈페이지

▶ 프랑스한인회, '2021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교민 120여명 한 자리에 모여 한 해 마무리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프랑스한인회는 지난 12월 10일 파리 15구청 대연회장에서 '2021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사진 프랑스한인회)

프랑스한인회(회장 송안식)는 지난 12월 10일 파리 15구청 대연회장에서 '2021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프랑스한국대사관 유대종 대사와 직원들, 프랑스한인회 전임 회장단과 청솔회, 한인단체장 등 교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21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송안식 한인회장은 사업보고에 앞서 “제36대 한인회는 보여주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한인사회에 다가가려 노력했다”며 “코로나 시국에서도 계획했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한인회 임원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내년 주요 사업으로 ▲원로 초청 떡국 잔치(1월 29일) ▲삼일절 행사(3월1일) ▲체육대회(5월7일) ▲광복절 행사(8월 15일) ▲코리아 페스티벌(9월 중순 금·토·일) ▲쉬프 기념비 탐방(11월 11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월 9일)를 개최하기로 했다.



프랑스한인회는 지난 12월 10일 파리 15구청 대연회장에서 '2021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사진 프랑스한인회)

2부 순서로 송년회가 만찬과 함께 이어졌다. 송년회에서는 성악가 정의철·송기태 씨의 축하공연과 교민 노래자랑 및 시상식,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 재독총연, 새해에도 취약계층에 행복상자 보내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최병천 기자= 재독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박선유)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1월에 두 차례 진행한다.

이미 지난 1월11일 독일 전역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 90세대에 택배로 '행복상자'를 보낸 재독총연은 오는 25일 다시 60세대에 '행복상자'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복상자엔 쌀 1포, 떡국떡 1kg, 진간장 840ml, 된장 1kg, 고추장 1kg, 옛날 국수 소면 1.5kg 등 생필품과 OP 마스크 50장과 FFP2 마스크 1봉지(한국산 마스크 6개)가 담겨있다.

재독총연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과 총연 자체 적립금, 그리고 재독동포들의 찬조금을 모아 행복상자에 들어가는 생필품과 마스크를 구입했다. 쌀 100포를 후원한 '통 큰' 기부자도 있었다.

박선유 재독총연 회장은 "재외동포재단과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런 나눔행사를 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유 재독총연 회장

▶ ‘제9회 통일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를 마치고

월드코레안
이석호 기자 dolko@hanmail.net



최경하 독일 라이프치히한인회장

올해는 유달리 구름에 해가 숨겨지고
마치 눈이나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의 날이 참 많았다. 서머타임이 해제
된 탓도 있었겠지만..

2020년 3월 공식 발표된 코로나 팬데
믹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우
리 일상의 평범함이 더이상 작동이
안되고 코로나 방역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만이 기준이 되는 혼란의 연속
이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준비
했던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
악회’는 결국 그해 12월 130여명이 부
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버츰열과이
어로 대처해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 약
1만여명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21
년 들어오면서 백신 보급률이 높아져
‘아 이제는 예전처럼 대면으로 제9회
통일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를 개최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11월 20일 음악회를 앞두고 독일은 사
상 최고치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했고, 음악회 하루 전날 아침까지
도 행사를 연기해야 하나 무척 고심했
다.

드디어 음악회 당일 현장 밖에서는 한
국에서 온 밴드 ‘레이지본’이 약 3~4
백명의 인파에 둘러싸여 거리 공연을
시작했다.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로가
요제에서 지난 9월 우승하고 독일 거
리공연과 라이프치히 통일희망 음악
회 무대에 서기 위해 독일에 온 팀이
다.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한인들이 야외
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거리두기
를 지킨 가운데 박수치며 그들의 공연
에 힘을 실어주었고, 지나가던 독일인
들도 한국의 밴드라고 신기해 하며 호
응하는 모습에서 이미 제9회 통일희망
음악회의 열기는 후끈 달아오른 상태
였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 음악회를 보
기 위해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러 곳에
서 찾아주셨다. 조현옥 주독일한국대
사를 비롯해 이번 음악회의 공동 주최
자인 주독일한국문화원의 이봉기 문
화원장, 유제현 유러한인총연합회장,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 민주평
통 베를린지역 자문위원들, 두 팀의 통
일부 사절단까지 라이프치히를 비롯
해 쾰른,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비
스바덴, 뒤셀도르프 등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다.

이날 음악회는 2G 코로나 규정(백신
접종 완료자, 완치자)에 따른 사전 자
리 예약제로 가족이 아닌 경우 자리를
비워둔 채 거리를 유지하며 운영됐다.

고요함 속에 윤태규가 편곡한 피아노
4중주 ‘선들러 리스트’ 테마곡은 그
애절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코로나
로 메마르고 위축됐던 마음을 열어놓
았다.

피아니스트 정혜진, 바이올리니스트 김경지, 첼리스트 김지영, 비올리스트 황정선의 열정적인 첫 번째 무대는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많은 이들에게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연주였다.



지난 11월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한 연주홀에서 라이프치히한인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라이프치히한인회)

이어진 조현옥 대사와 박선유 회장, 유제현 회장의 격려와 축하 인사말, 그리고 Herr Schefke씨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1989년 평화촛불혁명의 촬영 이야기 후, 본격적으로 음악회는 시작됐고 필자의 진행과 함께 동시통역으로 민주평통 유럽 최연소 자문위원 최하나 씨가 수고했다.

테너 장진영의 한국 가곡 '시간에 기대어'는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듯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될 수 있었고, 이어진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의 도주'에 나오는 아리아 'Frisch zum Kampfe'는 화려하고 멋진 고음으로 연주홀 전체를 울리는 시원한 목소리를 선사했다.

다음으로 메조소프라노 엘쉬비에타 랍스는 통일 전 동독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이곳 라이프치히 땅에 이주해 정착할 때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국가곡 '얼굴'을 노래해, 친구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하루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남성 4중창 최현영, 김신재, 장진영, 서광민 그리고 피아노 정택영까지 그들이 뿜어낸 4인4색의 아름다운 목소

리가 어떻게 하모니로 어우러지는지를 보여준 'You Raise Me Up'과 '선한 능력'(Von guten Mächten)은 연주회가 끝난 후 몇몇 독일인들이 찾아와 나중에 음악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느냐, 남성4중창팀 것만이라도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느냐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 11월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한 연주홀에서 라이프치히한인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라이프치히한인회)

당초 클래식과 인디 밴드와의 무대조합이 될까? 염려했던 한국에서 온 밴드 레이저본 팀은 완벽한 무대 매너로 '옥류관'이란 자작곡을 선사해 주었다. 이 곡은 중국의 어느 북한식당에서 북한 친구들과의 짧은 조우를 표현한 곡이다. 우리 같은 한민족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어색한 것인가, 하루 속히 한반도 땅에 평화와 통일이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내용의 노래였다.

한국전통의 아름다운 자태와 색상 그리고 우아함이 돋보인 4명의 한복쇼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맨처음에는 발걸음과 손짓조차도 어색했던 한복쇼의 최사라, 이지혜, Pansa, Repovs는 전광숙 선생님이 한국에서 한뼘 한뼘 정성스레 만들어 보내주신 한복을 입고 그 한걸음 한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한국전통의 색상과 자태를 표현했다.

평소에 자주 들었던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외국친구가 부르며 어떻게 표현될까?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친구인 Conny에게 제안하

자 그가 보인 첫 반응은 '나 사실 한국과 한국음악 너무 좋아했어'였다. 이렇듯 한류와 K-팝은 이미 이곳에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우리의 한류와 K-팝을 배우고 접하기 위해 언젠가는 이들이 한국을 찾아 그 진수를 접하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한다.



지난 11월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한 연주홀에서 라이프치히한인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라이프치히한인회)

베이스 장세종은 라이프치히오페라단에서 베이스 주역가수로, 소프라노 송은정은 하노버오페라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한국과 독일에서 잘나가는 성악가 부부이다. 송은정은 한국가곡 '추억'이란 곡과 프랑스오페라 아리아 'il est doux, il est bon'으로 멋진 무대를 장식했고, 베이스 장세종은 돈 조반니에 나오는 아리아 'Madamina, il catalogo...'는 모차르트의 작품으로서 최고의 베이스가수가 갖추어야 할 성악적인 모든 테크닉을 보여줬다. 이어진 '신고산타령'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 오는 것을 악보화한 한국가곡인데 첫 반주부터 첫음절이 터져나올 때 이미 '와! 이것은 우리의 것이네'하며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는 추임새와 8분의6박자 잦은 타령 장단은 우리 모두의 어깨를 들썩이고도 남았다.

마지막 곡으로는 작곡가 윤태규가 편곡한 '대니보이와 아리랑'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주희가 관객 속에서부터 연주를 시작한 작은 오케스트라 구성으로 피아노 정혜진, 현악기에 김경지, 황정선, 김유겸, 김지영, Frederike, 박대규 등이 연주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오 대니보이'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멜로디가 아리랑과 매치됐을 때

나오는 감성의 표현은 어느 대형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보다 매력적이고 정교함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11월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한 연주홀에서 라이프치히한인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라이프치히한인회)

관객과 전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의 멜로디는 다시 한번 독일 라이프치히 땅과 하늘을 울려 한반도 땅에 전해져 평화와 통일로 메아리쳐 돌아오길 희망해 본다. 내년에는 '제10회 통일희망 음악회'가 아닌 '제1회 한반도 평화통일 기념 음악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음악회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연주자, 스텝, 찾아주신 관객들 그리고 음악회가 열릴 수 있도록 공동 주최해 주신 주독일한국문화원, 후원해주신 기업과 모든 개인 후원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라이프치히 한인회 최경하 기고



지난 11월 20일 독일 라이프치히 소재 한 연주홀에서 라이프치히한인회와 주독일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제8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라이프치히한인회)

▶ 터키 이스탄불주에 ‘한국-터키 우정의 숲’ 조성



지난 12월27일 이스탄불주 펜딕 지역에서 ‘한국-터키 우정의 숲 조성 기념식’이 열렸다. [사진제공=주이스탄불한국총영사관]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 터키 이스탄불주 펜딕에 ‘한국-터키 우정의 숲’이 조성됐다. 주이스탄불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2월27일 이스탄불주 펜딕 지역에서 ‘한국-터키 우정의 숲 조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터키 우정의 숲 조성’ 사업은 김연경 배구 선수의 한국 팬들이 지난 8월부터 터키에 묘목을 기증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지난 8월 터키 남부에서는 열흘 이상 이어진 대규모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생겼는데, 한국에서는 김연경 또는 팀코리아 등 이름으로 터키에 묘목을 보내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한국 팬들은 터키를 김연경이 오랜 기간 선수로 활약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고, 묘목 기증 운동이 시작된 시점은 김연경이 도쿄올림픽에서 한창 활약하던 때다.

한국 팬들의 묘목 기증 운동을 계기로 지금까지 총 14만 그루의 묘목이 보내

졌고, 이 가운데 5만 그루가 이스탄불 펜딕에 위치한 ‘한-터키 우정의 숲’에 기증됐다. 총영사관도 1만4천 그루를 기증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터키 Eyüp Debik 환경단체연합(CE-KUD)회장, Erdal Sahan 이스탄불 산림청 부국장, Mumin Yildiztas 이스탄불문화관광청 부국장, Ahmet Cin 펜딕 시장, Abdullah Demir 카르탈 구청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펜딕 인근 지역 초중고학생 400여명은 묘목심기에 동참했다.

우성규 총영사는 “오늘 행사가 터키의 산불 피해 극복은 물론 양국간 우호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 체코한인회 홈페이지 소개와 활동 소식

체코한인회 홈페이지 <https://www.czechkoreans.com>
 2021년 체코한인회 활동사항
 (링크 클릭: <https://www.czechkoreans.com/blank-14>)

▶ 체코 한인회 회칙 (한국어, 체코어) 개정 (2021년 6월)

체코 한인회는 비영리법인 관련 체코 법에 맞게 한인회 회칙을 한국어와 체코어로 개정하여 공고하였으며, 체코 교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한인회 회칙은 한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체코 교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1차 오스트라바 (2021년 9월 4일)



2차 프라하 (2021년 9월 11일)



V 사업시행 배경

*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코 교민 및 현지인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

*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짧은 시간내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좌절됨에 따른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희망을 나누는 프로젝트

V 세부내용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장기간 단절되었던 체코내 교민사회 구성원의 격려와 안부 및 안전 확인

* 체코 교민가정 및 현지인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드리기 위한 쌀 한포 (9Kg) 나눔 행사

V 사업대상

* 체코 교민 및 현지인 대략 1,000명 (약 250가정)

V 운영 방법

* 교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섭외하여 각 가정에 쌀 한포(9Kg)를 나누는 행사 진행

* 교민들의 주 거주지인 프라하와 오스트라바 지역에서 두 번에 나누어 행사 진행

▶ 교민들의 어려움과 고민 상담.

V 체코 교민 대상 주재국 법률 및 세무 설명회 개최 (2021년 10월 25일)

이 행사는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과 체코한인회 공동 개최로 진행하였으며, 체코에 있는 교민들의 법률 및 세무 관련 중요사항들을 설명하고,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한.체코 차세대를 위한 음악회 (2021년 11월 12일)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한,체코 차세대 음악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한,체코 관객들 사이의 문화교류를 증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2년 체코 한인회 행사 계획

- * 쌀 나눔 행사 (1차 프라하, 2차 오스트라바)
- * 체코 한인, 체코인이 함께하는 한국-체코 체육대회
- * 주 체코 한국 기업 탐방 (오스트라바, 자테츠)
- * 체코 교민 대상 세미나 개최
- * 한·체 차세대 음악회
- * 한국 가곡의 밤 in 오스트라바
- * 2022년 체코 한인회 송년의 밤

▶ 스페인 마드리드서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다

이인자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장/ 재외동포신문 게재

마드리드한인회 주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을 마치고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인과 스페인 현지인 500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 케이팝 경연대회 우승팀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의 전통놀이를 다함께 즐기는 시간이었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오징어게임.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사기진작을, 현지인들에게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자 기획한 행사다. 최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오징어 게임이 앞서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기생충이나 미나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착안해 한국 전통놀이를 한인과 현지인들이 함께 체험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제1부의 시작은 이진우 준비위원장과 이유라 한인회 편집부장이 각각 한국어, 스페인어로 진행해 한인과 현지인들 모두가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작년 코로나19 시기에 부임해 처음으로 한인들과 마주한 박상훈 주스페인한국대사가 방문해 축하사로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한 이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고, 스페인 현지인들을 대표해 마드리드시

체육담당 부국장 Virginia Blazquez씨와 마드리드 국립대학 Alfonso López씨가 축하뿐만 아니라 행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왼쪽 왼쪽부터) 이인자 마드리드한인회장, 박상훈 주스페인한국대사, Virginia Blazquez 마드리드시 체육담당 부국장, 마드리드 국립대학 Alfonso López씨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마스크 문제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은 선보이지 못하게 된 대신에 세계 최고 국기원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을 동영상으로 선보인 뒤, 세계 케이팝 경연대회 가수 부문 우승자와 댄스부문 우승팀의 열정 넘치는 무대를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제1부 무대는 마쳤다.

제2부 사회는 Vailladolid에서 특별 초빙한 사회자 장예근 씨가 이진우 준비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2시간 동안 즐겁고도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진행을 맡아줬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파랑, 초록, 노랑, 분홍, 주황색 다섯 팀으로 나눠 진행된 이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으로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두가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 진행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움직여야 하는 긴장감과 박진감 그리고 가장 많은 웃음을 선보인 게임이었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달고나.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뽑기'. 달고나 하면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의 모습이 연상되며 떠오르는 게임! 새, 별, 사람모양의 달고나 500개가 게임 참가자들에게 주어졌고, 정말 이정재 처럼 허로 과자를 할는 사람, 열심히 하다가 부러져 억울해하는 사람, 달콤한 과자를 신나게 먹는 사람 등 다양한 모양으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게임은 '제기차기'. 한국인이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제기차기이지만, 축구의 왕국에 사는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공과 제기차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실감하게 하는 게임이었다. 현지인에게는 아직 어려운 종목이라 이 게임을 통과한 현지인은 단 2명뿐이었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제기차기.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딱지치기.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네 번째 게임은 ‘딱지치기’. 이 또한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 안타깝게도 현지인은 전원 탈락하고 말았다. 결승전에 도달한 사람은 한국인 4명!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다섯 번째 게임은 ‘투호던지기’. 4명의 결승 진출자는 노란색의 예쁜 투호를 원형 통에 넣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그 결과 1등에는 한국에서 군인으로 재직하다 스페인 한인2세와 결혼해 마드리드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덕륜 씨가 상금 456유로의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마드리드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고용진 씨가 차지해 상금 228유로를, 3등은 워킹홀리데이로 마드리드에 온지 2개월 된 김부겸 씨가 차지해 상금 114유로를, 4등은 올해 대학생이 된 전태근 씨가 차지해 상금 57유로를 받는 기쁨을 누렸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다음은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행운권 추첨시간! 모두가 사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번호 추첨시간이 되니 무대 앞쪽에는 조용한 긴장감과 번호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한국-스페인 왕복 항공권과 삼성전자의 최신형 핸드폰 추첨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항공권은 한국을 가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갈 엄두를 못 냈다는 현지인 Laura Díez Felipe 씨가 당첨돼 눈물을 글썽였고, 삼성 핸드폰은 408번으로 참가한 한인 임경령 씨가 드라마틱한 과정 끝에 행운을 차지하며 3시간여의 긴 행사의 막을 내렸다.

마드리드한인회의 한서 문화교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매년 개최하던 행사였다. 올해는 최근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오

징어게임’을 계기로 한국 전통놀이를 현지사회에 알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던 우리 한인들에게 신나는 놀이마당을 마련해주기 위해 개최했는데, 기획의도에 맞게 모든 참가자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평을 해줬다.

특히 열 체크 및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게임을 진행했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한인부부가 후원한 한국산 KF94 마스크와 함께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캐릭터 열쇠고리 인형 등을 선물로 나눠주는 등 한인회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고광희 유럽한인경제인총연합회장, 강영구·이인철·이병민 전 마드리드한인회장, 이길수 전 스페인한인총연합회장, 양은숙 코윈 스페인 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현직 및 역대 회장들도 모두 참석해 오랜만에 개최하는 한인회 행사의 자리를 빛내줬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준 마드리드한인회 임원을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의 결과물이라 더욱 값진 이 행사에 참가한 모든 한인들과 스페인 현지인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지난 12월 18일 토요일, 스페인 마드리드한인회가 주최·주관한 ‘2021 한서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가 Polideportivo municipal Gallur에서 개최됐다. (사진 마드리드한인회)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사무 주요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1. 9. 10. ~ ‘22. 4. 8.	금 금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1. 10. 10. ~ ‘22. 1. 8.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 ‘22. 1. 8.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22. 1. 19. ~ 1. 28.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22. 1. 29. ~ 2. 2.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22. 2. 3. ~ 2. 6.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22. 2. 7.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22. 2. 9. ~ 2. 13.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22. 2. 13. ~ 2. 14.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8의14④ 규§136의13
~ ‘22. 2. 17.	목	재외투표소의 명창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 ‘22. 2. 20.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 ‘22. 2. 21.	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 규§136의17
‘22. 2. 23. ~ 2. 28.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22. 3. 4. ~ 3. 5.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22. 3. 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제10장(투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제11장(개표)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 2021년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전 세계에 재외동포가 73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
http://www.worldkorean.net

외교부는 외국에 체류 또는 거주하는 국가별 재외동포의 현황을 조사, 집계한 '2021 재외동포현황' 자료를 12월24일 공개했다. 외교부는 홀수년마다 재외공관을 통해 전년 말 기준 동포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 현황은 △인구센서스, 이민국자료 등 공식 통계 △공관 직접 조사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자료 △동포단체 자료 등을 활용해 산출한 추산·추정치이다.

'2021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올해 재외동포 수는 2년 전인 2019년(749만3천명) 비교해 약 16만8천명이 감소했다. 2000년 이후의 재외동포수를 보면 565만명(2001), 663만명(2005년), 716만명(2011년), 753만명(2017년) 등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 수를 대륙별로 보면 동북아시아 316만9천명, 남아시아태평양 48만9천명, 북미 387만1천명, 중남미 9만명, 유럽 67만7천명, 아프리카 9천명, 중동 1만8천명이다.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을 보면 미국(263만3천명), 중국(235만명), 일본(81만8천명), 캐나다(23만7천명), 우즈베키스탄(17만5천명), 러시아(16만8천명), 호주(15만8천명), 베트남(15만6천명), 카자흐스탄(10만9천명), 독일(4만7천명) 등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미국은 2년 전보다 8만6천명 늘었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11만명, 6천명 줄었다. 외교부는 193개국을 조사했는데 재외동포가 1만명 이상인 국가는 26개국, 1천명 이상인 국가는 57개국이다. 재외동포가 1명도 없는 국가는 13개국이며, 10명 미만인 국가는 3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이다.

[국가별 재외동포 현황]

1. 미국 2633777명	2. 중국 2350422명	3. 일본 818865명
4. 캐나다 237364명	5. 우즈베키스탄 175865명	6. 러시아 168526명
7. 호주 158103명	8. 베트남 156330명	9. 카자흐스탄 109495명
10. 독일 47428명	11. 영국 36690명	12. 브라질 36540명
13. 뉴질랜드 33812명	14. 필리핀 33032명	15. 프랑스 25417명
16. 아르헨티나 22847명	17. 싱가포르 20983명	18. 태국 18130명
19. 키르기스공화국 18106명	20. 인도네시아 17297명	21. 말레이시아 13667명
22. 우크라이나 13524명	23. 스웨덴 13055명	24. 멕시코 11107명
25. 인도 10674명	26. 캄보디아 10608명	27. 아랍에미리트 9642명
28. 네덜란드 9473명	29. 덴마크 8694명	30. 노르웨이 7744명
31. 과테말라 5629명	32. 대만 5527명	33. 벨기에 5277명
34. 파라과이 4833명	35. 헝가리 4544명	36. 스페인 4530명
37. 이탈리아 4089명	38. 스위스 3882명	39. 남아공화국 3357명
40. 터키 2727명	41. 오스트리아 2720명	42. 폴란드 2635명
43. 미얀마 2537명	44. 체코 2505명	45. 칠레 2402명
46. 사우디아라비아 1864명	47. 카타르 1782명	48. 페루 1654명
49. 방글라데시 1611명	50. 몽골 1545명	51. 라오스 1502명
52. 슬로바키아 1493명	53. 벨라루스 1333명	54. 피지 1189명
55. 아일랜드 1181명	56. 케냐 1141명	57. 투르크메니스탄 939명
58. 이라크 860명	59. 룩셈부르크 858명	60. 핀란드 850명
61. 스리랑카 824명	62. 콜롬비아 793명	63. 타지키스탄 757명

64. 이집트 750명	65. 쿠웨이트 740명	66. 니카라과 730명
67. 파키스탄 673명	68. 우간다 672명	69. 에콰도르 653명
70. 네팔 648명	71. 볼리비아 557명	72. 도미니카공화국 551명
73. 알제리 534명	74. 탄자니아 527명	75. 이스라엘 500명
76. 가나 440명	77. 파나마 426명	78. 코스타리카 405명
79. 나이지리아 374명	80. 아르메니아 364명	81. 모로코 352명
82. 에티오피아 344명	83. 루마니아 329명	84. 요르단 312명
85. 그리스 292명	86. 오만 273명	87. 포르투갈 265명
88. 불가리아 256명	89. 세네갈 255명	90. 우루과이 197명
91. 르완다 193명	92. 바레인 193명	93. 엘살바도르 178명
94. 이란 178명	95. 모잠비크 176명	96. 마다가스카르 175명
97. 코트디부아르 175명	98. 크로아티아 175명	99. 온두라스 172명
100. 레바논 170명	101. 브루나이 168명	102. 잠비아 167명
103. 몰타 166명	104. 파푸아뉴기니 161명	105. 튀니지 160명
106. 아제르바이잔 158명	107. 베네수엘라 154명	108. 아이티 151명
109. 조지아 151명	110. 말라위 144명	111. 세르비아 142명
112. 콩고민주공화국 126명	113. 동티모르 125명	114. 보츠와나 120명
115. 자메이카 116명	116. 알바니아 102명	117. 앙골라 100명
118. 에스와티니 97명	119. 짐바브웨 92명	120. 에스토니아 84명
121. 몰도바 82명	122. 솔로몬제도 80명	123. 적도기니 70명
124. 카메룬 69명	125. 가봉 64명	126. 모리셔스 63명
127. 모리타니아 61명	128. 토고 61명	129. 그레나다 60명
130. 바누아투 60명	131. 사이프러스 50명	132. 수리남 48명
133. 부르키나파소 47명	134. 기니 46명	135. 라트비아 46명
136. 슬로베니아 46명	137. 라이베리아 44명	138. 시에라리온 44명
139. 수단 40명	140. 감비아 39명	141. 아프가니스탄 39명
142. 나미비아 35명	143. 쿠바 32명	144. 트리니다드토바고 31명
145. 니제르 30명	146. 베냉 27명	147. 리투아니아 26명
148. 팔라우 26명	149. 코소보 23명	150. 부룬디 21명
151. 아이슬란드 21명	152. 말리 20명	153. 북마케도니아 20명
154. 통가 18명	155. 남수단 16명	156. 마셜제도 15명
157. 벨리즈 15명	158. 기니비사우 13명	159. 부탄 12명
160. 차드 12명	161. 중앙아프리카 11명	162. 마이크로네시아 10명
16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0명	164. 몰디브 8명	165. 지부티 7명
166. 몬테네그로 6명	167. 코모로 6명	168. 키리바시공화국 6명
169. 리비아 5명	170. 세이셸공화국 5명	171. 세인트루시아 4명
172. 바베이도스 3명	173. 안도라 3명	174. 예멘 3명
175. 콩고공화국 3명	176. 카보베르데 2명	177. 레소토 1명
178. 리히텐슈타인 1명	179. 바하마 1명	180. 산마리노 1명

▶ 대선후보 “재외동포청 신설” 한목소리…새 정부서 과연 이뤄질까

후보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후 설치하겠다”…구체적 청사진은 제시 안 해
동포들, 부처 외청보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재외동포처’ 원해
18·19대 때도 약속했지만 ‘空約’ 그쳐…“새정부 거는 기대도 크지 않아”

왕길환(ghwang@yna.co.kr)



20대 대선 후보들.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0대 대선 후보들이 732만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일제히 공약해 차기 정부에서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각 후보 캠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위한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외동포청 설치에 오랜 기간 재외동포들의 숙원이란 걸 잘 안다”며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 외교부 외청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전제로 먼저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 이번에도 ‘空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732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들은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컨트를 타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그동안 줄기차게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해왔다.

현재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해 교육은 교육부, 영사 업무는 외교부, 출입국은 법무부, 병역은 국방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이들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뒤탈다고 주장한다.

비정부기구(NGO) 유엔피스코의 허준혁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SNS)에서 “부처 간 흩어진 업무의 조정과 통합, 효율성과 일관성 제고, 1만여 개에 이르는 세계 한인단체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은 “2067년에는 3천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에 732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며, 이미 국

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세계 한인회장들은 고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결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재외동포는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라 추켜세우며 재외동포청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잘 알기에 20대 대선 후보들도 앞다퉂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을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사업을 맡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재외동포청’ 만들어야

후보들은 큰 틀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한 뒤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재외동포들은 이왕이면 외교부나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차관급) 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재외동포처’(장관급)를 희망한다.

허준혁 사무총장은 “외교부나 행정안

전부로 들어가면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대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전담 기구는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2017년 법안을 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비슷하다. 당시 김 의원은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병무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들 부처에 산재한 예산을 통합하면 3천억 원에 이르게 전담 기구 예산도 이와 비슷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종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은 “전담 기구의 설립은 더는 대선 후보들의 선행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꼭 재외동포 정책을 컨트롤하는 장관급 기구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18대, 19대 때도 같은 공약... “차기 정부 거는 개대도 크지 않아”

하지만 재외동포들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18대 박근혜 대통령, 그로부터 5년 뒤 당선된 19대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이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재외동포청 신설 공약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모양새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하려는 국회의 노력은 지금껏 이어졌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후 지금까지 국회에는 9차례나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03년 조용규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듬해 같은 당 홍준표 의원, 2005년 이화영,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모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07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재외동포청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외교교통상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 설립을 주장하면서 맞섰고, 이후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2009년 이후에는 홍준표, 심윤조 (새누리당),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 회기 때마다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심상만 회장은 “재외동포들은 10년 넘게 실현하지 못한 재외동포청 신설을 놓고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후보들에게 거는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은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외동포청 설치의 결국 선거 투표수에 달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장면 [연합뉴스 DB 사진].kr

▶ 대선 재외선거 유권자 왜 6만명 줄었나...”코로나19로 귀국 늘어”

‘우편투표 제도’ 미도입에 대한 실망감도 반영돼
재외유권자 규모, ‘수도권 만 18살 투표자’, ‘춘천시 유권자’와 비슷
“우편투표 등 도입하고, 732만 재외동포 지원예산 더 늘려야”

왕길환(ghwang@yna.co.kr)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 관련 안내 포스터 [선관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다음 달 23~28일 전 세계 178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는 왜 6만명 이상 줄어든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20대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인 수가 총 23만1천247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29만4천 명보다 6만 명 이상 적은 인원이다. 유학생·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251만여 명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선거적령기에 해당하는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재외동포 전문가들은 재외선거 유권자 수 감소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우편투표 도입 미실시 등을 꼽았다.



호주 시드니에서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DB 사진]

‘코로나 19로 귀국자 늘어 재외선거 등록자 감소’

김교식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에 사는 유학생과 단기체류자 등 상당수 재외국민이 귀국해 재외선거 등록자 수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 단체는 그동안 ‘대선 투표 50만 표 달성’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재외선거인 신청·등록 독려 활동을 해왔다. 김 총장은 “특히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중 상당수가 코로나19가 발생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귀국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교부가 발표한 ‘2021 재외동포 현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 재외국민 수는 2019년 59만2천441명에서 무려 17.39% 감소한 48만9천420명을 기록했다.

중남미는 10만3천617명에서 12.86% 줄어든 9만2천89명, 중동은 2만4천498명에서 24.98% 급감한 1만8천379명이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

한 후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귀국 등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재외국민 수는 246만1천386명에서 4.51% 감소한 235만422명을 기록했다. 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중국 지역을 합치면 23만3천432명의 재외국민이 줄어든 것이다.

그는 “이 인구 통계는 2020년 통계를 취합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귀국한 인원 등까지 합치면 올해 재외국민 수는 더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 도입 기대감 사라진 것도 영향’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외공관의 선거 업무가 중단돼 참정권 행사를 못 한 재외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기대가 남달리 컸다.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은 “올해 대선에서만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재외국민들은 기대했는데, 정치권이 그 기대를 또 저버렸다”며 “그 실망감 때문에 대선에 대한 관심도 동반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서영교·설훈·김석기·이형석·이은주 등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재외선거 편의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공식 선거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지속해서 우

편투표,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고면서 법안을 제출했지만, 번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이번 대선 투표가 끝나고, 2년 뒤 총선이 다가오면 또 ‘희망 고문’을 하면서 개정법안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청와대, 외교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뛰어다니며 우편투표 도입을 호소한 심상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회장도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 10개 대륙 375명 전·현직 한인회장의 친필 서명 등을 담은 400쪽 분량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서’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우편투표 등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촉구하는 심상만 회장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제공]

재외선거 유권자, ‘수도권 만 18세 유권자’와 비슷

다만 대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재외선거 유권자가 23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 2017년 19대 대선 당시 29만여 명에 이어 역대 선거 가운데 2번째로 많은 유권자 수이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 가운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강원도 춘천시의 유권자와 비슷한 규모이다.

심 회장은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재외국민을 위한 예산 확대를 제언했다. 그는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애가 이어지고, 올해 1조4천억원이 넘는 춘천시의 예산을 고려하면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750만 재외동포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예산은 춘천시 예산의 4.72%에 불과한 707억원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구홍 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각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촘촘한 한인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국 발전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며 “말로만 ‘21세기는 한민족 시대’를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하노이 재외선거 투표소 표정 [연합뉴스 DB 사진]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유권자등록률 11.51% /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제공
(2022. 1.10. 07:00기준)

총 23만1천247명 등록, 19대 대선 선거인등록 294,633명대비 등록자 수 63,386명 감소

<대륙별 등록현황>

아주 112,626명/ 미주 76,318명/ 유럽·러시아·CIS 32,847명/ 중동 6,883명/ 아프리카 2,573명

<주요국 등록현황>

미국 53,302명/ 중국 30,001명/ 일본 29,446명/ 베트남 14,413명/ 캐나다 12,781명/ 호주 8,229명

<주요도시 등록현황>

상하이(9,793명)/ 동경(12,811명)/ 뉴욕(9,514명)/ 호치민(6,999명)/ LA(10,780명)/ 하노이(7,159명)/ 북경(5,352명)/ 토론토(6,244명)/ 시드니(6,199명)/ 샌프란시스코(6,408명)/ 프랑스(4,551명)

등록율 순위 1~5

1위 프랑스 43.8%/ 2위 프랑크푸르트 34.7%/ 3위 인도네시아 34.6%/ 4위 싱가포르 31.5%/ 5위 상하이 25.6%

10만명 이상 거주지역 등록율

뉴욕 5.7%/ LA 4.7%/ 샌프란시스코 5.7%/ 시카고 4.8%/ 애틀랜타 4.8%/ 오사카 3.1%/ 동경 10.2%

5만명이상 거주지역 등록율

호주시드니 10.0%/ 베트남 하노이 13.8%/ 베트남 호치민 9.7%/ 시애틀 5.4%/ 중국 북경 10.6%

▶ 유럽한인총연합회 2022년도 정기총회 소집 공고

유럽한인총연합회에서는 2022년도 정기총회를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유럽 각 국가의 한인회 상임사님들과 이사님들 및 유럽한인총연합회 임원님들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바랍니다.

내용	유럽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소집
일시	2022년 3월 18일, 19:00 -21:00 시/ 웅변대회 3월 18-20일
장소	Croatia, Zagreb/ Sheraton Zagreb Hotel
안건	1. 행사 경과보고 2. 재정보고 3. 정관개정 4. 제17대 회장선거 및 감사 선출 5. 2022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6. 기타 안건
연락처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국: yuchonggermany@gmail.com

총회 안내

1. 2020년 3월 20일 소집된 총회는 불가항력인 코로나 팬데믹의 급속 확장으로 연기되었습니다.
2. 유럽총연 정관 별도규정 제2장 3조(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총회연기에 대한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박선유 외 6명)의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기 외 6인)의 결정에 따라 총회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 2-1. 정관개정위원회 유권해석: 정관 제22조(별도규정) 3항에 정관의 미비한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규정과 별도규정 제2장 정관개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유권해석), 본 회의 정관을 유권해석하고 그 결과는 본회의 최고 의결효력을 갖는다는 규정에 의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현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문서번호 2020-03-03
 - 2-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기)에서는 총회 연기와 앞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단독 출마, 마감된 유제현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문서번호 2020-01-03
3. 총회 안내 1, 2에 의거하여 2022년 정기총회에서는 유제현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제17대 회장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총회 구성원들은 정관 제17조(위임권)에 의거하여 총회 참석 구성원인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회의 7일 전(3월 11일)까지 유럽한인총연합회 사무국으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의 투표와 의결권은 2022년도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회 구성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럽한인총연합회

▶ 2022년도 유럽한인총연합회 행사 일정

일자	내용	장소	비고
2022년 3월 18일	정기총회	Zagreb, Croatia	예정
2022년 3월 18-20일 (2박3일)	제9차 유럽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Zagreb, Croatia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주관: 크로아티아한 인회
2022년 5월 27-29일 (2박3일)	유럽한인 체육대회	터키, 이스탄불 (예정)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후원: 현지 국가한인 회
2022년 7월 19-24일 (5박 6일)	제2회 꿈과 기적을 향한 청소 년 통일캠프	독일/베를린 지역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2022년 9월 30일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 제 4권 출판 및 기념행사	국회의사당 회의실 (예정)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2022년 9월 30일- 10월 2일 (2박3일)	유럽한인회장단 워크숍	한국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2022년 년중	코로나 19 방역 지원사업	유럽 각 국가	주최: 유럽한인총연 합회 주관: 각 국가한인회

▪ 일정과 장소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UMHO TYRE

All-Ways. Go With you

BALANCED PERFORMANCE, This is KUMHO TYRE's Solution for Victory



KUMHO TYRE is the official sponsor of TOTTENHAM HOTSPUR

BALANCED PERFORMANCE, What matters both on the ground and the road!

KUMHO TYRE and TOTTENHAM HOTSPUR are moving forward together for the best performance

BALANCED PERFORMANCE

KUMHO TYRE

www.kumhotyre.de



KUMHO TYRE

All-Ways. Go With you

OFFICIAL PARTNER